

김종직의 『이준록(彝尊錄)』에 대한 문학적 고찰*

구슬아**

- I. 문제제기
- II. 찬술 배경과 구성 방식
 - 1. 창작 동기
 - 2. 『소학(小學)』적 구성 방식
- III. 김숙자 상(像)의 정립 양상
 - 1. 총론(總論) : 규범적 삶을 고수하는 군자
 - 2. 입교(立敎) : 유교 이념을 전파하는 교육자
 - 3. 명륜(明倫) : 『소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대부
 - 4. 경신(敬身) : 원칙과 지조를 견비한 위정자
- IV. 문학사적 의의

<국문초록>

본고는 김종직이 부친 김숙자의 세계(世系)와 연보, 사우명단, 생전의 언행, 제의(祭儀) 등의 다섯 범주로 부친의 삶을 반추한 기록인 『이준록(彝尊錄)』을 문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글이다. 김숙자는 김종직이 『소학』의 학습과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하는 스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준록』의 구성 방식과 주제의식을 통해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록』은 그간 김숙자의 전기적(傳記的) 사실을 담은 사료로 여겨져 왔지만, 여기에는 김종직의 문학적 가공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김종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III장 1절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문학적 주제가 관류하는 문학 작품으로 간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준록』의 찬술 배경과 전체적 구성을 개괄함으로써, 김종직이 김숙자의 학문적·윤리적·정치적 업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김숙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소학』적 저술태도와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후손과 독자들에게 대한 교육적 효과까지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이어서 『이준록』의 주제의식을 ‘총론(總論)’, ‘입교(立教)’, ‘명륜(明倫)’, ‘경신(敬身)’이라는 『소학』의 대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각 일화를 정밀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김종직이 『이준록』을 조선의 실천 사례가 추가된 조선식 『소학(小學)』의 성격을 갖는 저술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가장 먼저 김종직은 김숙자의 삶에 대해 효제(孝弟)라는 도덕적 원칙을 실천하며 오륜을 수호하는 규범적 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김숙자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대부 독자들이 성리학의 도덕적 원칙을 실천하여 수신(修身)해야 한다는 김종직 평생의 주장과도 관련되어 있다.

‘입교’에서는 김숙자가 실천한 성리학적 학습의 방법과 교육 순서를 소개하는 한편, 지방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치중하였던 교육자적 면모를 강조하는 일화를 제시하였다. ‘명륜’에서는 제례와 혼례에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사대부들이 『소학』과 『주자가례』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김숙자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신’에서는 원칙과 지조를 견지한 군자로서의 면모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준록』은 김종직의 문학적 형상화 수법이 다채롭게 반영되어 부친 김숙자의 삶을 매개로 독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후대 문인들에 의해 가사(家史), 가범(家範), 제례서 등의 다양한 양태로 그것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문학의 실용적·기록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김종직, 김숙자, 『이준록』, 『소학』, 『주자가례』.

1. 문제제기

본고는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1431~1492)이 부친 김숙자(金叔滋, 1389~1456)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세계(世系)·연보(年譜)·사우(師友)의 명단·생전의 언행·가범(家範)으로 남긴 제의(祭儀) 등 모두 다섯 범주로 부친의 일생을 정리한 『이준록(彝尊錄)』을 문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유교문화권의 사대부들에게 부친(父親)이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학문의 스승이자 정치의 선배였고 모든 행동거지의 규범이었다. 또한 요란 가운데 부자유친(父子有親)이 가장 먼저 제시될 정도로, 효를 바탕으로 한 부자지간은 모든 사회질서의 가장 근원적 형태로 인식되었다. 김종직과 김숙자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종직은 조선중기의 수많은 사림과 문인들을 양성해낸 스승으로서 성리학적 학통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김종직의 자의식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김숙자이다. 김숙자는 길재(吉再, 1353~1419), 성균사성(成均司成)을 역임한 윤상(尹祥, 1373~1455) 등에게서 각각 『소학(小學)』과 『주역』을 수학하였다.¹⁾ 김종직은 1436년 김숙자가 성균박사(成均博士)에 임명되었을 때 서울로 따라가 처음 수업을 받은 이래,²⁾ 꾸준히 부친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학업을 전수받았다. 그리하여 김숙자는 정몽주(鄭夢周)-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 등으로 이어지는 여말선초의 성리학적 학맥³⁾ 가운데 자리하였다. 『이준록』의 서문을 쓴 조위(曹偉)는 송대의 대유(大儒)인 호안국(胡安國)과 호인(胡寅)

1) 김종직, 『彝尊錄』 下, <先公事業 第四>, “及年十二三, 鄉先生吉再, 以嘗仕高麗, 辭祿於本朝, 果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其教自洒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躐等, 公亦往受業焉. 及十五六, 隸于鄉校. (….) 然猶曰: ‘吾學未也, 吾當求諸四方.’ 聞尹公祥守黃澗縣, 徒步往受易, 窮探陰陽變化之數, 原始要終之說, 尹公知公志之銳, 爲盡其奧. 由是, 公之易學大明, 以之爲業經.”

2) 『佔畢齋集』 문집 부록, <佔畢齋先生年譜>

3) 『선조실록』 권3, 1569년(선조 2) 윤6월 7일, “[奇]大升曰: ‘至麗末, 禹倬, 鄭夢周後, 始知性理之學. 及至我世宗朝, 禮樂文物, 煥然一新. 以東方學問相傳之次言之, 則以夢周爲東方理學之祖, 吉再學於夢周, 金叔滋學於再吉, 金宗直學於叔滋, 金宏弼學於宗直, 趙光祖學於宏弼, 自有源流也.’”(밑줄 부분: 태백산사고본 실록의 원문에는 ‘吉再’가 ‘再吉’로 되어 있는데 오기로 보인다. 이 부분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린다.)

부자, 채원정(蔡元定)과 채침(蔡沈) 부자를 예시로 들어 김종직의 도덕·문장·학문의 연원을 부친 김숙자에게 뚝으로써, 그가 김종직이 타고난 재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성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⁴⁾

김숙자는 김종직의 학문적 스승일 뿐만이 아니었다. 김종직의 가문인 선산 김씨(善山 金氏) 집안은 고려시대에 대대로 호장(戶長)을 세습하였다가 김종직의 5대조인 김광위(金光偉)에 이르러 처음으로 향직에서 벗어나 사족의 반열에 들어섰는데,⁵⁾ 특히 대과에 급제하여 중앙관직을 역임한 것은 김숙자와 그의 재종형 김종리(金從理)가 처음이었다.⁶⁾ 이처럼 김숙자는 김종직에 앞서 가문을 일으키는 시발점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많은 문인들이 그러하였듯 김숙자는 생전에 시문을 지으면 곧바로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작품이 지극히 적으며, 사후에도 문집이 편찬되지 않았다.⁷⁾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등 생애를 재구하는 데 필요한 방증자료 또한 거의 없다. 『이준록』은 현전하는 문헌들 가운데 김숙자의 학문과 성품, 언행의 진모를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셈이다.⁸⁾

4) 曹偉, 『이준록』上, <彝尊錄序>, “文簡公佔畢齋先生, 道德文章, 師範一世, 學問淵源, 出於先司藝公, 如致堂之於文定, 九峯之於西山. 其操履之篤, 文詞之富, 雖由天分之卓越, 而皆先公訓迪而養成者也.”

5) 김종직, 『이준록』상, <先公譜圖 第一>, “厥後, 競用豪武, 霸於州郡, 據有其土地人民, 以輸貢賦於國, 因以爲所在戶長, 育子長孫, 遂爲本貫. 高麗太祖統合初, 戶長之能團結鄉兵, 率先歸服, 及有功於軍陣者, 俾登於朝, 有至侍中大匡者. 其間或患本貫之俗, 往往強梗, 不遵法度, 遂至蕩弛, 欲綏治而鎮服之, 則自大官, 謝事于朝, 還爲戶長, 夾輔守宰, 以聽民治焉. (….) 良醴府君始能奮起鄉曲, 化刀筆爲簪纓, 上以紹正朝公, 而下以啓諸子孫, 實金氏肇慶之祖. 故特表而出之也.”

6) 김종직, 『점필재집』문집 권1, <答綴書>, “吾宗, 起自和義, 已百餘年于茲. 良醴公以後, 諸宗子姓, 亦已衆矣. 而仕爲公卿者, 絕無矣, 登科第者, 唯吾先君及先君再從兄諱從理及而翁與余耳. 嗚呼! 百年之既久也, 而得第者纔四人也, 而吾家有其三.”

7) 김종직이 『이준록』을 편찬할 당시 이미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숙자가 사망한 후 김종직이 직접 약간 수의 시문을 별도로 묶어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별집은 현전하지 않는다.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自少時所著述, 不爲不多. 然旋作旋棄, 不畜一紙. 宗直謹錄所聞見者若干首, 載在別集.”

한편 1934년에 후손인 김진식(金鎭植)이 『일선지(一善志)』에 수록된 <和角巾吉先生>, 『점필재집』(권2)에 수록된 <安東別室>, 『정구풍아』에 수록된 <高靈東軒>, <又次韻> 등 총 네 수의 시와 『이준록』에 수록된 산문 기록을 모아 『강호선생실기(江湖先生實記)』(국립중앙도서관 등 소장)를 편찬하였다.

8) 『이준록』은 김숙자의 보도(譜圖)와 세계, 기년(紀年), 사우, 사업, 제의 등 다섯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도와 세계는 일종의 초기적 족보의 형태이며, ‘기년’은 김숙자의 연보이다. ‘사우’에서는 김숙자의 동년(同年), 향당과 조정의 동료 등의 간략한 사적을 정리하여 사승-

이처럼 『이준록』에는 여말선초의 교육 방법, 김숙자 삶의 특징적 일화⁹⁾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일찍이 연구자들이 주목한 바 있다.¹⁰⁾ 그러나 대부분 생애 재구의 자료로써 일부가 언급되었을 뿐 『이준록』의 내용 전체를 문학적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준록』은 김종직이 남긴 산문 작품 가운데 가장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1차 찬술을 마치고 약 20년 뒤 수정 보완하였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김종직의 애착과 문학적 정수가 담긴 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친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기억에 남는 주요 일화나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한편 다섯 가지의 대부분류에 따라 이를 안배하기까지 하였다. 김종직은 분명한 서술의 목표를 견지한 채 부친의 일생을 반추하고 그 덕업을 칭양함으로써, 김숙자를 일종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록』은 단순히 부친의 전기적 사실을 재구해 놓은 기록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분명 김숙자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¹¹⁾ 그보다는 김종직이 자신의 부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독자들에게 부친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이를 통해 김숙자가 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는지와 같은 문학적 가공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작품의 예술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찬술자인 김종직의 의식 세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면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본고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치중하는 <선공보도(先公譜圖)>와 <선공기년(先公紀年)>, <선공사우(先公師友)>보다는 <선공사업(先公事業)>을 중심자료로, <선공제의(先公祭儀)>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이준록』의 문학적 측면에 대해

교유 관계 등을 밝혔다. ‘사업’은 김숙자의 생애를 총망라하는 가운데 중요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의’에서는 김숙자가 행한 구체적 제례 방법을 기록하였다.

- 9) 일화란 잡록, 필기, 잡기, 패설 등에 실려 있는 아주 짧은 서사 작품들을 지칭하는 갈래 명칭이다. 이강욱, 『일화의 형성 원리와 서술 미학』, 보고사, 2014, 15면.
- 10) 특히 <선공보도>로 인해 15세기 보첩(譜牒)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았다. 이수건, 『영남사림과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한국의 성씨와 족보』, 보고사, 2004 등 참고. 박선정, 『점필재 김종직 문학 연구』(이우출판사, 1989) 등의 문학 관련 연구에서도 김종직의 수학기(修學期)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써 『이준록』을 활용하였다.
- 11) ‘록’이라는 장르는 형식적 느슨함 혹은 유연함, 기록적 측면 등으로 인해 저자의 창작의지가 담긴 문학적 작품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사료나 방증자료 등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한국문집총간 수록 『이준록』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으며, 국역은 『점필재집』 전체에 대한 초벌 번역을 한 한국고전번역원 임정기 선생님의 번역과 2016년에 완역된 점필재 연구소의 『역주 점필재집』(권5)을 참고하며 일부 윤색을 가하였다.

II. 찬술 배경과 구성 방식

1. 창작 동기

김종직은 1458년 음력 4월에 복(服)을 마친 뒤 김숙자의 사업과 제의 등을 기록하여 1차로 『이준록』을 엮었다가, 이후 선산부사를 역임하던 1480년 보도·기년·사우 등과 관련된 기록을 추가 고정(考定)하고 주희(朱熹)의 선례를 본떠 모친의 행장을, 도연명(陶淵明)의 선례를 본떠 외조부의 전을 창작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준록』을 최종 완성하였다.¹²⁾ 조선전기까지 부친의 행업(行業)과 관력(官歷), 사우 등의 기록을 총망라하여 책으로 엮은 사례는 『이준록』이 최초이다.

『이준록』이라는 명칭은 『예기(禮記)』의 ‘겨울제사[烝祭]의 술잔에 명을 새긴다(施于烝彝鼎)’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¹³⁾ ‘이준(彝尊)’은 제사에 쓰는 술동이와 술잔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자손이 선조의 덕업을 기록하여 드러내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수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명칭에서 드러나듯, 김종직은 김숙자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후손들

12) 김종직, 앞의 책, <先公師友 第三>, “右譜圖紀年師友姓氏等錄, 戊寅(1458)年所已撰述, 而今庚子年(1480), 更加考定, 事業及祭儀, 則皆仍戊寅之舊云.”; 조위, 앞의 책, <彝尊錄序>, “昔在戊寅, 先生服闋家居, 悼先公有至德茂行, 不大顯於世, 手撰一錄, 先之以譜圖, 次之以紀年, 又次之以師友, 平生蒞官行事與夫訓戒之辭, 家廟祭儀之可法者, 纖悉具載, 無有遺失. 歲庚子, 更加校定, 又劾陶淵明朱晦菴, 撰外祖朴公傳及先夫人行狀, 增附於後.”

13) 조위, 앞의 책, 앞의 글, “日之曰彝尊錄, 蓋取諸禮施于烝彝鼎之義也.”; 鄭玄, 『禮記注疏』 권 49, <祭統 十五>, “公曰: “叔舅! 予女銘, 若纂乃考服” 悝拜稽首曰: “對揚以辟之, 勤大命, 施于烝彝鼎.” 此衛孔悝之鼎銘也.”; 같은 곳, “古之君子, 論譏其先祖之美, 而明著之後世者也, 以比其身, 以重其國家如此. 子孫之守宗廟社稷者, 其先祖無美而稱之, 是誣也, 有善而弗知, 不明也, 知而弗傳, 不仁也, 此三者, 君子之所恥也.”

에게 널리 알리고 계승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준록』을 찬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에 『이준록』을 찬술해야만 했던 김종직의 구체적 심경이 보다 잘 드러난다.

아! 선공께서는 평생 벼슬하셨으나 지위와 덕이 일치하지 않았다. 31세에 벼슬에 나아간 이후 13년간은 유락(流落)한 신세였고, 참외(參外)에서부터 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28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주부(主簿)를 여섯 차례, 부령(部令) 두 차례를 역임하셨고, 현감이 되신 것은 세 번, 교수관과 교리, 부정(副正), 사예를 각각 한 번씩 하였는데, 이 관직들은 모두 평범한 일반 관직이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하여 끝내 위대한 사업을 도모함으로써 그 학문을 시행해 보지 못하셨다. 비록 현감이 되어 고을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 미친 은혜의 범위가 일개 현(縣)에 그쳤을 뿐 온 세상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게다가 뇌물이나 바치는 도필리(刀筆吏)들이 앞뒤에 있었으니, 아!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 아아! 가슴 아프도다! 하늘이 선공에 대해서는 이미 지위에 인색하였는데, 거기에도 수명까지도 인색하였으니 누가 하늘이 사람에게는 신실하다는 말을 믿겠는가?¹⁴⁾

인용한 대목은 김종직이 <선공기년>에서 김숙자의 연보를 정리하고 그 말미에 붙인 일종의 발문이다. 여기에는 김숙자가 고명한 학식과 뛰어난 덕업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 그런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중외(中外)의 낮은 관직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에 대한 김종직의 강한 불만이 담겨있다.

당시 김종직은 대과에서 막 낙방하였던 데다 부친의 임종조차 하지 못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삼년상을 치르고 있었다. 또한 부친의 연보를 정리한 뒤에 이처럼 부친의 일생을 다시 한 번 총괄하고 감정을 토로하는 글을 붙였다는 점에서 제문(祭文)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종직은 ‘지위가 덕에 걸맞지 않았다[位不滿

14) 김종직, 앞의 책, <선공기년>, “嗚呼! 先公平生仕宦, 位不滿德. 年三十一出身之後, 流落十三年, 自參外至大夫, 凡二十八年. 其間六爲主簿, 兩爲部令, 爲縣監三, 爲教授官校理副正司藝各一. 所歷皆當世常調之官, 龍鍾踰躓, 卒不得大有所爲, 以行其學. 雖得專城爲政, 而利澤之及民者, 止于一縣而不能咸. 且或與刀筆苞苴之輩, 相先後焉. 噫! 天耶人耶! (….) 嗚呼痛哉! 天於先公, 旣靳於位, 復靳於壽, 孰謂天之信於人也?”

德], 즉 덕에 비해 지위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도가 시행되는 세상에서 덕을 닦은 인물은 반드시 덕의 크기에 걸맞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주희가 제기한 것으로 유자들의 일반적 기대이기도 하다.¹⁵⁾ ‘以行其學’이라는 표현은 『논어』 「선진(先進)」 제11장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 등장한 것으로, 위정자는 반드시 학문이 완성된 이후에 벼슬을 통해 그 학문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따라서 부친의 덕과 지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표현에는 곧 부친이 지닌 고매한 덕과 높은 학문의 경지를 고려하면 그 정치적 지위 또한 마땅히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모순적 상황에 대한 불만과 슬픔이 내재되어 있다. 심지어 『논어』에서 ‘어진 자는 장수한다[知者樂, 仁者壽]’(「용야(雍也)」)고 하였던 상식과는 달리, 김숙자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사망함으로써 하 늘로부터 그 어진 성품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중직이 이처럼 강한 불만을 토로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김숙자는 뛰어난 학문적 능력과 행실의 소유자였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정치적으로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1418년 첫째 부인인 곡산 한씨(谷山韓氏)를 부친 김관(金瑄)의 명에 따라 내치고, 1420년에 밀양 박씨(密陽朴氏)와 재혼하여 김중직 등을 낳았다. 이 출처(出妻) 사건은 김숙자의 환로에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헌부의 탄핵까지 받았다.

탄핵의 구체적 사유는 김숙자가 조강지처를 이유 없이 내치고 전처 소생을 서얼이라고 일컫는 등, 그 행실이 사유(師儒)가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이었다.¹⁷⁾ 이 때문에 밀양에 내려와 있던 김숙자는 1435년이 되어 서야 겨우 서울로 복귀하였는데, 1438년(세종20) 10월에는 경명행수(經明行修)의 선비라 하여 집현전의 천거를 받고 동궁의 서연을 담당하는 서연

15) 朱熹, 『孟子章句集注』 권7, 「離婁 上」, “孟子曰: ‘天下有道, 小德役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道, 小役大, 弱役強. 斯二者, 天也, 順天者, 存, 逆天者, 亡.’”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 “有道之世, 人皆修德, 而位必稱其德之大小. 天下無道, 人不修德, 則但以力相役而已. 天者, 理勢之當然也.”라고 하였다.

16) 주희, 『論語章句集注』 권6, 「先進 第十一」, <子曰是故惡夫佞者>, “然必學之已成, 然後可仕, 以行其學.”

17) 『세종실록』 권21, 1423년(세종 5) 7월 4일, “司憲府啓: ‘成均直學金淑滋, 有子息糟糠之妻, 妄稱庶孽, 無故棄別. 律應杖八十, 追還完聚.’ 從之.”

정자(書筵正字)를 겸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간원에서 조강지처 출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행적이 없다는 점, 행실이 경박하여 시강(侍講)의 반열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용을 반대하였다. 결국 김숙자는 1439년 4월 파직되고 사유록(師儒錄)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다.¹⁸⁾ 이 사건이 사헌부 등에 알려지는 과정에 전혀 한씨의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었다.¹⁹⁾ 인용한 단락에서 ‘뇌물질 하는 도필리’라 함은 바로 이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유록의 등재자였던 김숙자가 제명되는 과정은 학문적·윤리적 측면에서 김숙자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김숙자로서는 성리학에 정통하다는 점과 근실한 성품을 인정받아 세자의 사표(師表) 후보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가, 순식간에 행실이 온당하지 못한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리학에서 도덕적 성품과 행실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²⁰⁾ 김숙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앙관직에서 파직되고 같은 해 6월에 선산교수(善山教授), 1441년에는 김해교수(金海教授), 1442년 11월에는 고령현감(高靈縣監) 등 지방관직을 전전하였고, 막내아들이 김종직의 대과 급제를 미처 보지 못한 채 1456년에 사망하였다.

김종직은 1456년 2월 식년시에 그의 큰형 김종석(金宗碩)과 함께 응시하였으나 둘 중 김종석만 합격하였고, 실의한 채 고향에 내려오는 도중인 3월 2일 김숙자의 부음을 듣게 되었다. 게다가 당시 흉년과 홍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삼월지제(三月之制)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다가 12월이 되어서야 장사지낼 수 있었다.²¹⁾ 자식으로서 과거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도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18) 『세종실록』 권85, 1439년(세종21) 4월 14일, “初, 令集賢殿成均館薦經明行修可爲師儒者, 集賢殿以注簿金叔滋薦之. 至是, 吏曹除叔滋東部教授官. 司憲府啓: ‘叔滋登第後, 棄糟糠之妻, 心行不正, 不可謂之行修, 集賢殿同辭以薦. 請以貢舉非其人律罪之, 並罪吏曹官吏, 且削叔滋《師儒錄》.’ 上特有集賢殿吏曹之罪, 命削叔滋《師儒錄》.”

19)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0)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김숙자는 출처 사건으로 인한 탄핵의 과정에 이름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에는 김종직의 급제로 인해 사후에 원종공신으로 추증되는 명단에 이름이 등장하거나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도통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거론될 뿐이다.

21) 김종직, 앞의 책, <선공기년>, “孤子等以年荒家貧, 不能從三月之制, 十二月庚申, 葬于粉底谷.”

과 실망감,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 등의 감정이 삼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더욱 응축되었고, 결국 김숙자의 ‘가언(嘉言)’과 ‘선행(善行)’의 일단을 정리하여 후세에 남김으로써 속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²²⁾ 뛰어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친이 세상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경륜을 미처 다 펼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자, 김중직은 직접 부친의 전기적 생애를 글로 남김으로써 그러한 부조리를 극복하고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다.

아! 선공의 평소의 덕행과 사업에는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이 매우 많지만 이 고자(孤子)가 어찌 감히 남들에게 그 부분을 칭송할 수 있겠는가? 고자가 선공의 훌륭한 점에 대해 칭양한다면 그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러나 선공께서 벼슬을 하신 것은 모두 낮은 관직이었으므로 사관(史官)이 선공께서 행한 사업에 대해 기록할 수가 없었다. 또한 선공께서는 빼어난 덕을 내면에만 간직하고도 직접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그 크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무릎 위에 앉아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한 번 쟁그리고 한 번 웃고 하는 가운데 친히 보고 듣는 것에 무뎠어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을 사람으로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남들이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행적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선공의 훌륭한 행적이 끝내 후대에 밝게 알려지지 못할 것이므로, 고자는 이 점을 크게 두려워할 뿐이다.²³⁾

인용한 대목은 <선공사업>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이다. 앞서 살펴본 글과 달리 재덕과 지위가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부친에

22) 김중직, 앞의 책, 下, <先公祭儀 第五>, “嗚呼痛哉! 先公生我教我, 俾知數與方, 而卒不能逮無恙時, 爲孝道以報效焉。往年正月, 迫於會試, 與伯氏告辭于堂下, 執爵而祝二人曰: “汝兄弟取高第而還, 吾復何憂? 敢以此爵爲汝輩福。” 孤平日雖大戚, 未嘗於膝下見涕, 恐傷親之心, 及茲不覺泫然。遂偕計赴京, 伯氏得遂嚴望, 季敗衄還鄉, 未及里門, 而於黃澗路上, 聞此大酷。蒼天蒼天! 其有是耶! 先祖先祖! 其有是耶! 執爵之祝, 耿耿在耳, 是先公永訣之言也! 思之, 當時之涕, 亦天誘其衷, 使之無離左右也。而不免爲利祿所羈, 乃竟違去, 以至於斯, 極惡極逆! 俾誰任其咎耶? 荼毒荼毒, 人世有何樂而獨全耶? 猶質質自持, 再離寒暑, 奄及于祥禫。嗚呼痛哉! 嗚呼痛哉! 其平生嘉言善行, 不能猶萬分之一, 姑以傳志吾恨爲幸也。天順二年戊寅四月日, 宗直識。”

23) 김중직, 위의 책, <선공사업>, “嗚呼! 先公平日德行事業, 可紀者甚衆, 孤宗直何敢爲人稱道? 以孤而揚先善, 其誰取信哉? 然先公仕諸朝皆冗官, 太史氏不得書其行事。又且含章蘊美, 不自表襮, 人無得窺其涯際者。有以坐膝承顏, 一嚬一笑, 親濡染於耳目, 不遺錙銖者, 孰孤若也? 患未取信於人而不著之, 是先公之美, 終不昭于世也, 孤是以大懼焉。”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에 대한 불만 대신, 부친의 덕업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후세에 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²⁴⁾ 김종직은 부친의 학식과 덕업을 강조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록,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부친의 훌륭한 행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부친의 언행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상기하며 사적·공적 일화 가운데 부각시킬 부분은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김숙자의 인품을 진정성 있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인해 중앙 요직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였더라도 김숙자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학문을 연마하고 덕업을 실천해나간 이상적 인물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준록』의 찬술 방침은 조위가 1497년에 지은 <이준록서>에서도 잘 드러난다.²⁵⁾ 조위는 김종직이 『이준록』을 찬술할 때 부친의 행적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미화하였다는 혐의를 받지 않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일을 기록하거나 과장되게 꾸미는 작업을 지양하고 사실을 충실하게 드러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숙자의 덕행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축적·열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기억력과 필력을 바탕으로, 모종의 기준에 따라 덕행을 가장 선명하게 내보일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강약을 조절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김종직은 『이준록』을 구성하는 다섯 항목의 내용에 따라 글쓰기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를테면 첫 번째 항목인 <선공보도>는 김씨 가문의

24) 연암 박지원의 아들 박종채(朴宗采)가 부친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과정록(過庭錄)』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과정록 계열의 작품들은 주로 부친의 모범적 행적을 기술하여 후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이런 교훈적 성격 외에도 부친의 인품을 후세에 전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이며, 자신의 기록이 미진하여 부친의 훌륭한 면모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고 정리하였다. 홍아주, 『朴宗采의 『過庭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3면.

25) 조위, 앞의 책, 앞의 글, “嘉言懿行, 耳濡目染於趨庭之日. 而一念不謹, 苟不存之心, 則漫不能記. 雖或記之, 而筆力不逮, 則錄一漏百, 曷能備述其全如是其詳耶? 是錄也, 先後有序, 詳略得宜, 該而不失於細, 實而不至於文, 苟非愛慕之深, 誠孝之至, 潛心體認, 服膺不失者, 何能至此哉! 況祭禮一事, 尤關風教, 我國家久染習俗, 士大夫喪祭, 雜用浮屠, 莫或正之, 獨司藝公, 奮不顧流俗, 一遵文公之禮, 倡於鄉里. 先生又筆之於書, 著爲家範, 一洗世俗之陋, 豈徒金氏一家世守之規? 抑亦當世搢紳之所當法也. (….) 然則是錄之行於世也, 豈非敦民彝厚風俗之一助乎?”

계보와 선조들의 전기적 기록의 수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자신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였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것을 수록하는 한편,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술하는 태도를 지양하는 등 사실적 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다.²⁶⁾ <선공기년> 및 <선공사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반면 <선공사업>은 김종직의 1차적 일화 선별과 문학적 윤색이 가미되었으며, <선공제의>는 제의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범이나 가계(家誡)류의 기술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컨대, 『이준록』은 ‘록’이라는 기록적 장르를 활용하여 부친의 생애를 방대한 분량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한 전기적 성격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공사업>의 경우 부친의 삶의 반추하며 그 언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인 김종직의 기억과 고민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화들이 선택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주제에 따라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앞서 살펴본 인용문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준록』은 하나의 문학작품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각 일화들을 통관하는 주제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총체성을 띠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술을 남기지 않은 부친을 대신하여 그 삶을 형상화한 『이준록』의 글쓰기는 부친의 삶에 대한 단순한 재구를 넘어, 김종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종직의 입장에서 『이준록』의 찬술은, 정치적으로 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외적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대부로서의 면모를 되새기고 예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준록』은 결국 김숙자의 명에 회복은 물론, 김종직의 학문적·윤리적 자부심까지 고양시키고 나아가 이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강한 추동력에 의해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26) 김종직, 앞의 책, <선공보도>, “然世代綿遠, 莫有紀術者焉, 縱或有之, 王氏中業以還, 禍亂相仍, 州郡焚燹, 豈有三百年以上之遺文, 尙有可考者乎? 生于百載之後者, 烏可的然以宣弓爲所出之祖, 而自冒爲來雲, 以取笑於世人也哉? 郭崇韜之於汾陽, 南唐烈祖之於李峴, 此前史之所譏, 而狄武襄之見稱於世者, 可爲法戒也.”; 위의 글, “暇日, 徵其族譜得數紙, 皆闕略訛外, 又搜考府司所藏舊籍, 得前元皇慶泰定中所編, 首尾脫落者二張.”; 위의 글, “遂以與述爲鼻祖者, 斷自可見之世也.”

그러나 김종직은 1480년에 『이준록』의 최종 교정을 마친 뒤 어떤 이유에 서인지 원고를 상자 속에 보관하여 두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때문에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문인들도 모두 이 저술의 존재를 모르다가 김종직 사후 6년 만에 조카 강백진(康伯珍)이 그것을 발견하였다.²⁷⁾ 아마도 김종직은 끝까지 『이준록』이 부친의 삶에 대한 미화와 예찬이라는 혐의를 받아 오히려 부친의 훌륭한 행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준록』을 공개하지 않은 김종직의 선택을 통해, 단순히 이 글이 부친의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셈이다.²⁸⁾

2. 『소학(小學)』적 구성 방식

바로 이러한 찬술 배경을 염두에 두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준록』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선공사업>과 <선공제의>의 전체적 구성을 개괄하고자 한다.

<선공사업>은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되어 있는 일화를 통해 부친의 성품과 학습과정, 위정자로서의 면모 등을 설명하는 글이다. 내용의 변화에 따라 김종직이 직접 행(行)을 구분하였는데, 모두 4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일화는 대부분 생애 시기 순으로 배치된 편이나 분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주제와 시기가 중복되는 항목이 후반부에 재등장하기도 한다. 기재된 순서와 개략적 내용, 비정되는 시기, 그밖에 해당 일화의 글자수와 이해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비고’에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康伯珍, 앞의 책, 하, <彝尊錄識>, “辛亥春, 公辭以病, 退居于癡川之墅. 伯珍來作咸安, 觀省無時, 凡公之所著長篇大策, 以至遊山錄瑣談草, 靡不及聆而見之, 唯此編, 未嘗一寓目焉. 壬子秋, 屬啓公手足, 既斂, 乃索遺藁, 僅得詩文二十五卷及此編而已.”; 조위, 앞의 책, 앞의 글, “(先生) 藏之巾衍, 秘不示人, 及門之士, 皆不得知. 先生易箆後六年春, 甥興海郡守康子輶, 得之汗漫間, 將欲鋟梓以傳.”

28) 한편 이규익, 『연려실기술』에서는 『이준록』을 야사류(野史類)로 분류하였다.

<표 1> 『이준록』 <선공사업>의 내용 요약

항목	내용	시기	비고
1	김숙자 생애에 대한 총평		124자.
2	학문 입문과 성균관 입학 등의 학문 완성의 과정(천자문-소학-향교-향천-성균관)	1397~1414년	421자. 길재·윤상 등 두 스승과의 만남.
3	글쓰기의 특징	성균관 거관중	89자. 의의(疑義) 문체에 장점. 대사성 조용(大司成 趙庸)의 칭찬.
4	성균관에서 귀근(歸艸) 후 지역에서의 명망과 향시 및 과거 급제	1416~1418년	142자. 장원급제자 조상치(曹尙治)의 칭송. (출처 : 조상치의 아들 조변룡(曹變隆))
5	조정에서의 중망(重望)	1418년 이후	97자. 변계량으로부터 인정받음. 중국 제거(制擧)에 응시할 인원에 선발됨.(출처 : 정인지(鄭麟趾))
6	훈례, 조강지처 출처로 인한 탄핵 및 낙향	?~1423년	331자.
7	천거에 의해 환경(還京)하여 『사유록』에 등재되었으나 탈락하고 선산교수관 임명	1436년	157자. 실록보다 자세.
8	『소학』에 근거한 효성, 모친 삼년상 기간중의 애훼(哀毀) 및 정성	1431~1433년	194자.
9	뛰어난 이사(吏事) 및 법률과 인정 모두를 고려한 사송 판결	미상	99자. 김치(金峙)에게 이두 학습.
10	두 차례 현감 역임시의 치적	1442~1447년 1449~1453년	635자. '農桑盛-戶口增-學校興-軍政修-賦役均-詞訟簡-奸猾息' 등 수령철사의 순서대로 배치. (사송간 관련 내용은 없음)
11	향시고서관으로 공정한 시험 주관	1444년	111자. 향시나 과거에서 타인의 성명을 가탁하는 등의 부정사례가 많아 특기한 듯 함.
12	예빈시(禮賓寺) 재직 중 원칙에 입각하여 환관의 위세에 굽히지 않았던 사건	1438년	130자.
13	가야천(伽耶川) 은어(銀魚)의 진상 과정에서 백성들이 겪던 부당한 고통 및 성주(星州)와의 지역 갈등 해소	1442년	251자. 현재까지 인구회자.
14	고령의 진상품인 백사기(白沙器)의 제작 원칙 수립	1449년 이후	149자. 현재까지 인구회자.

15	전제경차관(田制敬差官)으로 파견되어 공정한 품등 제정 및 경차관 접대 금지	1448년	161자. 현재까지 인구회자.
16	세종조에 올린 <공법답험상소(貢法踏驗上疏)>	1444년	425자. 상소 원문 수록.
17	문종 및 단종조에 제차 올린 답험 관련 상소와 그 영향.	1451~1453년	253자. 『단종실록』권9, 1453년 11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김숙자의 주장대로 부임한 지 3년 이상 된 수령이 직접 양전(量田)하는 정책이 시행됨.
18	세종과 문종의 상례(喪禮)시 보인 총정(喪情)	1450년; 1452년	156자.
19	현감 재직시 제철과일을 갖다 준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 줌	미상	73자.
20	개화(改火)를 잘 관리	미상	67자.
21	돈독한 우애 : 누이와 전처 자식 간의 소송 해결, 조카들을 권면하고 혼례의 비용 마련, 친척들의 장례와 혼례 등에 직접 참여	1430년	227자. 소송내용이 『세종실록』권47(1월 14일; 2월 28일; 3월 5일)에 수록.
22	부친의 축첩으로 인해 상심한 모친 위로 및 여색을 좋아한 아우를 계도	미상	184자. 부부윤리 관련.
23	은퇴 이후 청빈한 삶	1455년	83자.
24	사환 이후에도 견지한 청고한 지절 : 낮은 관직을 역임하는 과정에서의 청빈함, 권세가에 청탁하지 않는 근실함	미상	157자. 동년 성념조(成念祖)
25	향리와 백성을 대하는 충후한 성품	미상	74자.
26	신독의 자세 : 의관 및 몸가짐을 단정히 함	미상	97자.
27	효자 천거	1442~1447년	152자.
28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감선(減膳)하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등 백성을 위하는 마음	미상	154자.
29	전임자의 잘못을 들추지 않고 합리적 방도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용심(用心)과 이재(吏才)	1449년 이후	85자.
30	회인불권(誨人不倦)의 자세	미상	156자. 『소학』 수업, 과거급제자 다수 배출.
31	자제들을 향한 벽이단(關異端) 및 절차에 따른 학습 방법 권고	미상	391자. 벽불, 학문의 순서, 육예(六藝) 강조.
32	『예기』 학습 강조	미상	56자. 31항목 가운데 벽불을 제외한 항목과 32항이 연계될 가능성.
33	『주역』의 학습	1449년	32자.

34	구체적 독서방법 제시	미상	88자. 『주자어류』 문체.
35	『중용혹문(中庸或問)』, 『대학혹문(大學或問)』의 독서 권유	미상	71자. 김종직 자신과의 추억 회상.
36	성리학 책제(策題)를 연습할 것을 권유	1448년	90자. 김종직 자신과의 추억 회상.
37	우졸(愚拙)한 성품에 대한 자부	미상	41자.
38	김종서(金宗瑞)와의 일화 : 사기(沙器) 상 남요구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돌려보 낸 일화	1455년	87자.
39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국가의 일을 비방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가르침	미상	55자.
40	안승선(安崇善)의 뇌물 사건에 대해 고한 김종직을 꾸짖은 일화	미상	78자.
41	자녀의 혼인시, 세족(世族) 여부와 가훈 유 무를 따질 뿐 재물을 논하지 않는 태도	1451년	154자.
42	경학에 바탕을 둔 전아한 문장 : 표전(表箋)에 장점, 자연스러운 시작(詩 作) 능력	미상	136자.
43	학록(學錄) 역임시 공식문서 전담	미상	92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종직은 학문에 임하는 열의와 자세,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모습, 따뜻하고도 엄격한 우애 등 사적(私的)·가정 내적(家庭 內的)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관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투철한 사명감과 임금에 대한 충성 등 공적(公的)·가정 외적 차원에서도 부친 김숙자를 대단히 이상적인 사대부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직 성리학적 원칙에 입각한 삶의 자세를 전일하게 고수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설정하되, 이두(吏讀)와 같은 실용적 지식의 습득 역시 게을리 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대략 1항부터 20항까지의 전반부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데, 처음 수학하게 된 과정, 향교에서의 수학 태도, 과거 급제 이후의 면모, 조정에서의 진출, 지방관 역임시의 치적을 보여주는 일화를 제시하였다.

후반부인 21항부터 43항까지는 시간순서에 따르지 않고 김숙자의 성품과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주요 일화를 추가 선택함으로써 전반부와 상호 조응하게 하고 있다. 특히 21항과 22항은 가정 내의 윤리에 대한 일화를, 23

항부터 43항까지는 행실과 교육 관련 일화를 두루 혼재하여 제시하였다. 벽이단에 대해 쓴 김숙자의 글을 삽입한 31항을 제외하고, 주로 우애와 효성을 바탕으로 한 제가(齊家), 성리학 학습, 애민의식과 관련된 일화를 더욱 자세하게 서술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선공사업>은 부친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연보와 달리, 부친의 행적 가운데 특정 국면들을 부각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²⁹⁾

또한 3항~5항에서 드러나듯 부친의 능력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칭송을 삽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꾀하였다.³⁰⁾ 김종직이 김숙자의 성격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제재를 선택하는데 대단히 신중하였다는 것을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정인지, 조상치 등 당대에 활발한 정치적 활약을 보인 인물들의 언행을 선택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경구(警句)와 같은 형식을 채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대신 김숙자의 모범적 행적과 원칙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체득·계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술방식에 대해 본고는 앞서 김종직이 『이준록』을 통해 부친의 ‘가언선행(嘉言善行)’을 기록하겠다고 한 표현에서 착안하여 『소학』적 저술 태도 혹은 『소학』적 구성 방식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결국 위의 표를 그 내용에 따라 유별하여 보면, 『소학』의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의 세 강령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의 내편(內篇)은 『예기』, 『논어』, 『주례(周禮)』 등 고대의 주요 경전에서

29) 사건이 중복되게 서술되어 있다는 점은 사마천이 인물전에서 활용한 호견법(互見法)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사마천은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호견법을 활용하여 특정한 사건에 대해 집중하거나 보충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형상이 더욱 돋보이고 안정하게 보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근거가 있고 표준이 되는 어떤 사실을 선택, 발췌, 강조하여 다른 유형의 인물들과 다른 구체적 개성과 전형성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지전화이(季鎮淮) 저, 김이식·박정숙 역, 『사마천 평전』, 글항아리, 2012, 216~217면.

30) 김종직은 부친 김숙자의 삶에 대한 현양이 객관성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김종직은 김숙자에 대한 칭양의 의미가 담긴 다른 사람의 말을 기록할 경우, 반드시 어떤 인물에게서 들은 것인지 출처를 병기하였다.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宰相以先公及三四名應之, 既而事寢, 不果行, 其名重如此. 金期叟於癸酉年冬, 過余於開寧, 亦曰: ‘聞之鄭領議政麟趾云.’”

각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편(外篇)의 「가언(嘉言)」, 「선행(善行)」은 앞서 내편에서 언급한 입교와 명륜, 경신의 내용들을 실증하는 인물의 일화나 언행을 경전이나 문집 등에서 발췌하였다.³¹⁾

특히 주희는 『소학』의 외편이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울 것이라는 점, 과거의 사례가 아닌 자신과 동시대 현인들의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내편의 요지를 한층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인의 예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도덕적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점 등의 교육적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³²⁾ 보다 구체적으로 외편에서 주희는 사마광이나 장재, 정이와 같은 북송대 문인들의 교육 내용, 교육에 임하는 태도를 기술하는 한편 가정과 중앙조정에서의 행동규범 못지않게 향당에 거주하는 사대부의 모습, 지방관을 역임하는 사대부의 모습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이나 향당, 조정 등의 위치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사대부들의 모범적 대응방안과 도의 실천 사례를 서술함으로써, 성리학적 신념을 언제 어디에서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³³⁾

이러한 『소학』 외편의 저술 태도를 고려한다면, 김종직은 『이준록』 가운데 <선공사업> 부분을 조선의 사례가 추가된 조선식 『소학』의 성격을 갖는 저술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김종직이 부친으로부터 『소학』을 중심으로 한 학습 방법을 전수받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31) 주희, 『小學集注』 권1 內篇, <立教 第一>, “此篇, 述古聖人所以立極教人之法, 其大目不出乎立明倫之教, 立敬身之教而已”; 권2, <明倫 第二>, “其目有五, 明父子之親, 明君臣之義, 明夫婦之別, 明長幼之序, 明朋友之交”; 권3, <敬身 第三>, “敬身者, 敬以持身也. 許文正公曰: ‘敬身之目, 其別有四, 心術威儀衣服飲.’”; 권5 外篇, “歷傳記, 接見聞, 述嘉言, 紀善行, 爲小學外篇.”

32) 진원, 『朱子의 小學論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76~78면. 진원은 『소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단순히 유교적인 덕목이나 인륜에 대한 보편적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인 집안과 향촌에서 인륜을 실제로 실천하도록 하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33) 이에 대해 신동은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신동은은 『소학』의 도덕교육적 의의를 분석하면서 주희가 「가언」과 「선행」 등의 외편을 가까운 시대의 현인들의 언행으로 구성함으로써 성인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삶에서 가깝게 실천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외편은 성인의 가르침을 당대의 버전으로 변형하여 실천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동시대인의 자기수양의 성과를 참고하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적합한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직접 실천해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신동은, 『『소학』의 도덕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45, 한국교육철학학회, 2009, 112~116면 참고.

따라서 그가 『이준록』을 찬술하면서 성리학적 대원칙인 효제(孝弟)를 삶의 곳곳에서 실천하고 확대하는 김숙자의 일화를 묘사함으로써, 중국 고대 성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날 조선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실천하는 성리학적 삶의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선공사업>이 조선식 『소학』의 구성 방식에 가깝다면, <선공제의의>는 그 가운데 ‘명륜 : 부자지친’과 더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소학』에서는 『예기』 가운데 <제의(祭儀)>, <제통(祭統)>과 같은 내용은 물론 사마광의 『온공서의(溫公書儀)』 등에서 제사의 의미와 구체적 재계의 방법, 제사에 먹었던 음식 등에 대한 내용을 발췌 인용하였다.³⁴⁾ 김종직은 <선공제의의>에서 『주자가례』 등의 서적을 중심으로 김숙자가 종묘를 받들고 제사는 지내는 과정에서 보인 성실한 마음가짐과 재계방식, 제사상에 올라가는 의물 및 제사의 횃수와 같은 구체적 도수나 절목 등 사대부 가문의 제례 과정과 지침을 총 13항목에 걸쳐 제시하였다.

<표 2> 『이준록』 <선공제의의>의 내용 요약

항목	내용	비고
1	종묘와 제사를 만드는 과정 : 『주자가례』	141자
2	제사 의물과 품절의 구체적 항목 및 의물 준비의 과정	285자
3	제례의 진행 과정	347자
4	축판의 형식	185자
5	제사에 참여하는 부인(婦人)의 역할과 태도	88자
6	집안의 제례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신주 복설	78자
7	외가 및 처가의 제사를 맡게 된 경위와 제사 과정	83자
8	시축에 따른 후한 묘제(墓祭) 및 의물	121자
9	현감 역임 당시 실천한 성묘의 모습	122자
10	현감 역임 당시 후한 제수(祭需)마련과 백성들에 대한 감화	108자
11	세속의 불교식 제례에 대한 개탄	115자
12	조상의 묘소 앞에서 아우들과 함께 평생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을 맹세한 일화	68자
13	출처 한씨 소생의 아들 종보(宗輔)를 종자(宗子)의 지위에서 폐하고 김종석을 종자로 삼은 사연	226자

34) 주희, 『소학』 외편, 『가언』 제23장 참고.

<선공제의>는 문학적 윤색이나 수식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선공사업>보다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1항부터 8항까지는 『주자가례』와 시속을 조화하여 사대부가 행해야 할 제례의 규칙을 서술하였다면, 9항부터 13항까지는 그것을 직접 실천한 김숙자의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자가례』에 기반한 제례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은연중에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위 지침이나 행동 강령을 제시하는 데 가까운 이와 같은 구성 방식 역시 『소학』에 보이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소학』에서 주희는 자신의 만년 저술인 『주자가례』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김종직은 『주자가례』의 성과를 인용하여 김숙자가 실천하였던 제례를 기록으로 남겨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조위가 『주자가례』에 의거한 제의를 선도적으로 실천한 김숙자의 삶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기록은 가문 내의 규범이 될 뿐 아니라 당대 사대부들의 습성을 바로잡고 풍속을 교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설명한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³⁶⁾

김종직은 이처럼 『소학』의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 목적에 따른 다양한 글쓰기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부친의 모습을 그 삶의 실상에 밀착하여 형상화하고 후대에 전달하려 노력하는 한편, 규범적 면모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부친을 이상화(理想化)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학』적 저술태도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사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김숙자 상(像)의 정립 양상

1. 총론(總論) : 규범적 삶을 고수하는 군자

김숙자의 삶에 대한 이상화 및 찬미의 목적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35) 예컨대 『은공서의』의 경우 사마광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제례의 과정과 필요한 제수 등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가법적 성격의 문체를 띄는 경우가 많다.

36) 조위, 앞의 책, 앞의 글, “祭禮一事, 尤關風教. 我國家久染習俗, 士大夫喪祭, 雜用浮屠, 莫或正之. 獨司藝公, 奮不顧流俗, 一遵文公之禮, 倡於鄉里. 先生又筆之於書, 著爲家範, 一洗世俗之陋, 豈徒金氏一家世守之規? 抑亦當世摺紳之所當法也.”

부분이 바로 <선공사업>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 단락은 부친의 성품[爲人]을 총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글 전체의 총론 역할을 하고 있다.

선공의 사람됨은 자상하면서도 간절하고 단정하면서도 곧아서, 행동하고 말 하는 것이 모두 법도에 맞았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향리에서는 공손하게 처신했으며, 관직을 역임할 때는 청렴하였고, 송사(訟事)는 실정에 맞게 처결하였으며, 친구들과는 신의로써 교유하였으며, 처자식들에게는 인자함으로 대해 주셨다. 공은 국량이 간이(簡易)하고 청정하여 사소한 일에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공을 우환(迂闊)하다고 여기기도 하였으나, 대절(大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여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니 60여 년간의 삶에 하나라도 흠결 있는 행실이 없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여 세속을 따라 운신하지 않았으므로, 작위(爵位)가 제때에 크게 현달하지 못하여 끝내 세상에 그 기량을 베풀지 못하였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³⁷⁾

인용한 단락에서 김종직은 김숙자의 삶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정도(正道)와 원칙에 따른 행실, 효성으로써 부모와 친족들을 섬기는 태도, 청렴한 관직 생활과 실정에 맞는 판단력, 신의로써 봉우를 사귀는 ‘봉우유신’의 의리를 오류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김숙자가 가정과 향당, 국가에 이르기까지 효제의 실천 범위를 확장해가는 인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승이나 관료와 같은 구체적 지위와 행동을 부각시키는 대신 그가 사대부로서 지녔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숙자의 삶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유가의 도덕적 원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김종직의 주장과도 관련되어 있다. 『소학』이 내편에서 입교와 명륜, 경신의 이론을 제시하고 외편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이론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병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총론격 진술을 통해 김종직은 김숙자의 개성적 면모를 제시하기보다는 그가 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수신(修身)에 힘쓰고 이를 제가(齊家)-치국(治國)에

37) 김종직, 앞의 책, <선공사업>, “先公爲人, 慈祥而惻怛, 端方而簡直, 動靜語默, 皆律以規矩, 奉親以孝, 居鄉以弟, 守官以廉, 聽訟以情, 交朋友以信, 遇妻孥以慈. 然器度簡易恬澹, 不屑屑於事爲之末, 人或以爲迂闊, 而大節則確然不少屈撓, 處世六十餘年, 無一行有欠缺者. 然而天資耿介, 不能隨俗俯仰, 故爵位不大顯於時, 卒不得有所施設, 可勝痛哉!”

이르기까지 실천해나가는 이상적 군자라는 점을 칭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총론은 결국 뒤에 이어지는 입교, 명륜, 경신의 구체적 사례와 상호 조응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 총론에서 ‘부모를 효성으로 섬긴다’고 한 것이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상제례나 모친 봉양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김숙자가 성리학적 대원칙을 견지하는 데 집중할 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다는 진술이 이어진다. ‘사위지말(事爲之末)’이라는 표현은 『논어』에서 기수(沂水)에서 목욕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 오겠다는 증점(曾點)의 고사를 담고 있는 『선진(先進)』²⁵장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따온 표현[視三子規規於事爲之末者, 其氣象不侔矣]이다. 이 출전을 고려한다면 ‘사위지말’이란 다름 아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김숙자가 정치에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급급해하지 않고 오직 학업 연마와 성리학적 원칙의 실천을 통해 수신에 집중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현달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자세에 대한 세속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고관을 역임하지 못하는 김숙자에 대해 세속에서 학업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로 평가하였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대부가 원칙에 입각한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것이 세상물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폄하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석되더라도 김종직은 부친이 고매한 학덕(學德)에 걸맞은 예우를 세속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음을 비판적으로 암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숙자가 이러한 세속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세속과 타협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 임하여 강직한 성품과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였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흠결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즉 김종직은 부친의 규범적 삶의 태도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그와 같은 인물이 대우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탄식과 비판을 금하지 않고 있다.

사대부로서 ‘우활함’이라는 세속의 평가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제37항과 38항에서 반복된다.³⁸⁾ 『이준록』에서 강조되는 ‘우활함’이란 결국 사대부가 세속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심지(心志)가 변할 수는 없

38)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嘗言, “世人以予爲拙, 安知拙誠吾身之大寶? 予固樂受, 汝亦吾兒, 觀汝所性, 亦必以拙聞者也, 無辭焉.””

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써,³⁹⁾ 정치적 지위와 같은 외적 결과로만 사대부의 삶을 평가하는 세속에 대한 김숙자의 학문적 우월감 내지 군자로서의 윤리적 자신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론을 통해 김종직은, 김숙자가 자제들에게 남겨준 정신적 유산이 바로 사대부로서 성리학적 의리를 실천하며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원칙과 소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종직은 김숙자를 군자로 이상화하고 있지만, 그러한 삶의 자세가 위급한 변고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준록』은 단지 규범적 인간형을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공사업> 전체를 통관하는 분위기는 김숙자가 학업적 능력과 고결한 도덕적 행실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까지 현달하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수신하고 자식으로서, 가장으로서, 향당의 일원으로서, 관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숭고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입교(立敎) : 유교 이념을 전파하는 교육자

총론에 이어 김종직은 김숙자의 호학적(好學的) 성품과 학문에 임하는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인용한 대목은 2항의 서두부분이다.

선공께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 덕분이다. 9세에 처음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진사공(進士公)인용자 주-김종직의 조부 김관[께서 일찍이 『천자문』을 직접 가르쳐 주셨다. 어느 날 선공이 조금 게으름을 피우며 나가서 장난을 치자 진사공이 회초리로 때리며 꾸짖으셨다. 그러자 선공은 울면서 책을 영봉리(迎鳳里) 길가 수풀에 던져 버렸다. 그런데 가다가 되돌아보니, 책이 바람에 날려 필릭

39) 오선주, 「정훈의 우월 의식에 대한 재고」, 『한국시가문화연구』 22, 한국시가문화학회, 2008, 192면 참고.

거리므로 문득 책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주워가지고 돌아왔다. 사재공(司宰公)[인용자 주·김종직의 증조부 김은유(金恩宥)]께서 당시 살아계셨는데 공의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 아이는 의당 유업(儒業)을 하겠구나.”라고 하셨다.⁴⁰⁾

2항에는 김숙자가 『소학』을 비롯하여 『주역』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에 입문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인용한 대목에서는 어린 시절 학문에 막 입문하던 시기의 일화를 묘사하고 있다. 장난치기만을 좋아하다 부친께 매를 맞고 분한 마음에 『친자문』 책을 버렸다가, 문득 날리는 책장을 보며 공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어린 김숙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迎風翩翩’과 같이 책장이 바람에 날려 흩날리는 모습에 대한 시칭각적 묘사와 ‘泣擲其冊’, ‘遽還携以歸’와 같은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순간 포착하는 수법을 통해 독자들의 웃음과 감동을 촉발하고 있다.

15-16세에는 향교에서 공부하였다. 당시에는 고려시대의 남은 풍습이 이어져 학교가 비록 설립은 되어 있었으나, 향도들이 서로 해이한 모습만 보이며 매일 오락만 일삼았다. 그래서 서너 명이 머리만 맞대면 난잡한 말을 떠들어대며 미친 듯이 웃곤 하였다. 하지만 선공은 반드시 한쪽으로 멀리 떨어져 단정히 앉아 글 외우기를 온종일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선공께 경탄하였다.⁴¹⁾

인용한 대목은 2항의 서두에 이어 소년 김숙자의 본격적 수업과정을 서술한 단락이다. 김숙자가 향교에 입학하였을 때를 회상하듯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학습에 매진하지 않던 여말선초 향교의 구습과, 단정히 앉아서 학업에 매진하는 김숙자의 수학태도를 ‘褻言狂笑’, ‘端坐誦書’라는 4자구의 대비를 통해 선명하게 대조하였다. ‘단정히 앉았다’는 것은 성리학적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정좌(靜坐)’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수렴함으로써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학습 태도를 가리킨다. 엄숙한 태도로 진지하게 학문에 임하는 이 자세는 『소학』 외편 「선행」 가

40)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好學, 出於天性. 九歲, 始讀書, 進士公嘗口授千字文. 公少懈, 出嬉戲, 進士公以楚警之. 公泣擲其冊, 於迎鳳里街林中. 去之返顧, 見其冊, 迎風翩翩. 公惜之, 遽還携以歸. 司宰公時尙無恙, 撫公背曰: “吾兒當業儒者也.””

41)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及十五六, 隸于鄉校. 時承前朝餘風, 學校雖設, 朋徒相視怠弛, 日以嬉遊爲事. 三四聚首, 則褻言狂笑紛如也. 先公必就屏處, 端坐誦書, 窮日不輟, 人皆敬憚之.”

운데 ‘경신’편에 제시된 학습 태도이기도 하다.⁴²⁾

김종직은 초반부터 막 학업에 입문한 이후 김숙자의 학습태도와 관련한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어린 나이의 독자들 특히 후손들에게 어릴 때부터 학업에 임하되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점, 진지한 자세로 차분히 학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학』 「가언」과 「선행」의 입교 관련 항목이 어린 나이에 학업에 입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⁴³⁾

이로부터 경전을 읽는 데 독실히 뜻을 두어 엄락고정(濂洛考亭)의 학문을 찾고 위로는 공맹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하여 중요하고도 복잡 난해한 데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잠심하고 깊이 연구하여 반드시 표리가 통투(通透)해진 다음에야 넘어가서 여유작작하게 진취하고 박약으로 성취하였다.⁴⁴⁾

인용한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듯, 김종직은 초학으로서 학문에 임하는 자세 뿐 아니라 김숙자가 유가의 경전을 독서하였던 구체적 방법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실제 김숙자가 행하던 독서법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종직은 마치 일찍부터 부친에게 이러한 독서법에 대해 들어왔던 것처럼 객관적 문체로 그것을 표현하였다. 문의(文意)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착종된 구절을 읽을 때는 반드시 깊이 숙고하고 되새겨 문맥과 표현을 온전히 깨달은 뒤에야 다음 구절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 단락의 문체는 『소학』 가운데 송대 학자의 어록을 인용하여 성리학적 독서법을 제시한

42) 주희, 『소학집주』 권6, 외편, 「선행」 제70장, “明道先生, 終日端坐, 如泥塑人. 及至接人, 則渾是一團和氣.” ‘정좌’는 마음을 고요하게 보존하여 외물로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아서 마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천리를 함양하는 방법이다. 미우라 구니오(三浦國雄) 역주, 이승연 옮김, 『주자어류집』, 예문서원, 2012, 133~134면.

43) 주희, 위의 책, 「가언」 제1장, “橫渠張先生曰: ‘教小兒, 先要安詳恭敬, 今世, 學不講, 男女從幼便驕惰壞了, 到長益凶狠, 只爲未嘗爲子弟之事. 則於其親에 已有物我, 不肯屈下, 病根常在, 又隨所居而長, 至死只依舊.’”; 위의 책, 「선행」 제1장, “呂榮公, 名希哲, 字原明, 申國正獻公之長子. 正獻公居家, 簡重寡默, 不以事物經心, 而申國夫人, 性嚴有法度, 雖甚愛公, 然教公, 事事循蹈規矩. 甫十歲, 祈寒暑雨, 侍立終日, 不命之坐, 不敢坐也. 日必冠帶, 以見長者, 平居雖甚熱, 在父母長者之側, 不得去巾襪縛袴, 衣服唯謹. (….) 時, 公方十餘歲, 內則正獻公與中國夫人教訓, 如此之嚴, 外則焦先生化導如此之篤. 故公德器成就, 大異衆人.”

44)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自是, 篤志經傳, 求濂洛考亭之學, 上溯孔孟之源, 凡肯緊盤錯, 覃精極慮, 必表裏通透而後過, 紆餘以就之, 博約以成之.”

단락과 매우 유사하다.⁴⁵⁾ 이와 마찬가지로 제2항은, 경전의 내용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김숙자 식(式) 성리학 독서법을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김숙자를 성리학의 교육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김종직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2항과 조응하는 또 다른 단락으로 제34항을 들 수 있다. 34항은 『주자어류』의 문체를 적극 차입하여 현장성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教余輩爲學不可躐等。初授童蒙須知·幼學字說·正俗篇，皆背誦，然後令入小學，次孝經，次大學，次語孟，次中庸，次詩，次書，次春秋，次易，次禮記⁴⁶⁾

學問須以大學爲先，次論語，次孟子，次中庸，中庸工夫，密規模大⁴⁷⁾

위에 제시한 원문은 34항 가운데 김숙자가 자제들에게 가르친 독서의 차서와 강령이고, 아래 제시한 글은 해당대목과 유사한 『주자어류』의 원문이다. 김숙자가 주자의 독서법을 고스란히 계승하였음을 문체적 측면에서도 알 수 있다.⁴⁸⁾ 주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를 넘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의 방법까지 알려주었는데,⁴⁹⁾ 김종직은 김숙자의 교육원칙에 대해 가장 권위적 지위를 가진 서적인 『주자어류』의 문체를 인용하여 재현함으로써, 김숙자의 선진적 안목을 강조하고 교육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 인물이 수학하는 과정과 학문적 발전단계에 대한 서술은 행장 등에서 간혹 발견할 수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문 것으로 판단된다.

45) 주희, 앞의 책, 「가언」 제82장, “凡看語孟，且須熟讀玩味，將聖人之言語，切己，不可只作一場話說，看得此二書，切己，終身多也.”; 제84장, “橫渠先生曰：‘中庸文字輩，直須句句理會過，使其言，互相發明.’”

46)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47) 黎靖德, 『朱子語類』 권14, 「大學 一」, <綱領>.

48) 우리나라에 1476년(성종7) 5월에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정효상(鄭孝常)과 박양신(朴良信)이 처음으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조선에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다.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사학지』 43, 단국사학회, 2011, 66면. 그러나 『이준록』의 <선공사업>은 1458년에 처음 수록한 뒤 1480년에 다시 수정하지 않았다는 김종직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그 이전에 이미 『주자어류』가 조선에 수입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49)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립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35~36면.

요컨대 김숙자가 학습의 방법, 순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성리학적 교육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학업을 닦는 한편, 자손들도 철저히 성리학적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시켰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김종직은 그를 조선전기의 가장 투철한 성리학 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또한 30~36항 등 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한 항목이 <선공사업>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을 할애한 항목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종직은 사대부들이 견지해야 할 삶의 원칙 가운데 학습에의 매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제10항에서는 김숙자가 가정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주력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두 현에서 모두 공자묘(孔子廟)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옷칠을 화려하게 하였으며, 신주(神主)가 대부분 법식에 맞지 않았으므로 모두 고쳐 만들고, 아들인 나에게 명하여 위패를 쓰게 하셨다. 또한 석진례(釋奠禮)에 쓰이는 각종 제기들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갖추어 두셨으며, 중대한 일이 없으면 석진례에 나아가 손수 의례를 점검하셨다. (...) 늘 직무를 마친 여가에는 두 사람씩 교대로 찾아오게 하여 일과(日課)를 강의하셨으며, 한 달에 세 번 씩 글을 짓는 시험을 보게 하여 성적에 따라 상벌을 달리하셨다. 그래서 전에는 두 현에서 문장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혀 없었는데 선공께서 학업을 흥기시킨 이후 고령의 박임위(朴霖威), 개령의 최한(崔漢) 같은 이들이 모두 사마시에 합격하는 등 누차 합격자가 이어졌다.⁵⁰⁾

인용한 대목은 제10항의 일부이다. 지방관으로서 김숙자가 행했던 수령철사(守令七事)⁵¹⁾ 가운데 교육[興學]과 관련한 대목으로, 향교를 수리하고 석진례의 엄중함을 강조하였던 면모와 함께 교육의 의무가 없는 지방관이 직접 고을을 다스리는 여가에 생도들을 불러 일과를 강함으로써 비로소 이

50)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其修學校也, 於兩縣, 大理孔子廟, 華以糝柴, 栗主率不中式, 悉改製之. 命子宗直題位號, 簞樽蠶蠶, 倚卓錫, 無不精完, 非有大故, 必親詣釋奠, 手爲之勸其儀軌.(...) 每聽事之隙, 輪進二人講課, 一月三試以文, 而隨以賞罰. 先是, 兩縣無以文登試者, 自公興學以後, 高靈若朴霖威, 開寧若崔漢, 皆得試司馬, 累榜不絕.”

51) 『경국대전』 『吏典』, <考課條>,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지방 출신의 인재가 과거에 급제하게 된 정황 등 교육자로서의 업적을 담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묘사 대신 지방관으로서 평상시에 입교와 관련하여 시행하였던 정책을 마치 곁에서 관찰한 듯한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묘와 신주를 수리하였다는 것은 바로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大成殿)에 대한 수리를 의미한다. 대성전은 강학 공간 못지않게 향교의 건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져 대부분 향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봄과 가을에 석전제를 올린다. 석전제의 공간인 대성전에 대한 수리와 의물을 정비한 것은 바로 성리학적 교육의 중심지로서 향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김종직은 김숙자의 목소리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린 시절 길재에게 수학하여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거두었던 자신 역시 지방의 인재들에게 학문을 할 수 있는 좋은 외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편 직접 인재들에게 학문을 권하고 이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환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 사명감을 지녔음을 객관적 문체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김숙자가 다른 문인들과 달리 지방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교육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⁵²⁾

3. 명륜(明倫) : 『소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대부

김종직은 학습의 차원을 넘어 김숙자가 『소학』의 내용을 직접 실천하여 오륜을 확립하려 하였던 규범적 사대부였다는 점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제시하고 있다.⁵³⁾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일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년상을 치르는 과정에 대해 서술한 제8항이다.

52) 김숙자가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절 교육에 치중한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김성우, 「15~16세기 善山·金泉 지역 儒學者들의 교류와 朝鮮 性理學의 전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역사문화학회, 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53) 실제 『소학』 내편과 외편에서도 「명륜」에 대한 내용과 분량이 다른 주제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진원, 「『소학』의 구성내용으로 본 주자의 소학론」,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548~549면.

선공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집에서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일을 『소학』의 내용대로 따라서 하였다. 신해년에 부모의 상을 당했는데, 슬퍼함이 예보다 지나쳐 물 한잔도 마시지 않다가, 염하고 초빈(殯)을 하고 나서야 겨우 죽과 음료를 마셨다. 봉암산(鳳巖山)에 장사 지내고 나서는 그대로 묘소 근처에 여막을 짓고 살며 추우나 더우나 배운 한 벌에 갇힌 한 켄레만을 착용하고, 몸에서는 수질(首絰)과 요대(腰帶)를 벗지 않았다. 또한 거적을 깔고 나무토막을 베고 누웠으며,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상을 마칠 때까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다. 봉암산과 생송리(生松里) 집과의 거리는 겨우 십 리였지만 3년 동안 한번도 집에 오지 않았고, 삭망(朔望)과 절일(節日)에 제를 올릴 때에는 우리 모두 인께서 산으로 가시어 오직 그 자리에서만 서로 만나볼 뿐이었다. 당시 풍속이 초상을 당하면 마치 과도에 휩쓸리듯 너도나도 불교의 방법을 따라하여, 유가라 자칭하는 자들도 그 폐습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공은 유독 확고부동하여 일체의 장례의식을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알맞게 거행하였다. 그리고 남에게 말할 적에는 반드시 이르기를, “내가 감히 스스로 세속과 달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정 길간의(인용자-길계), 김부사(金府使)[인용자-김치(金時)]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향리의 사군자들이 공의 슬퍼함이 지나치면서도 예를 넘지 않음을 보고 모두가 탄복하였다.⁵⁴⁾

인용한 단락에서는 부모 생존시에 『소학』에 근거하여 효를 행하는 한편⁵⁵⁾ 사후에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상제례를 치르는 김숙자의 실천가적 면모가 서술되어 있다. 부모를 시종하는 방법은 ‘皆從事小學書’라는 표현으로 요약 기술한 반면, 상례 치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기록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한 잔의 물도 입에 들이지 않았다[勺水不入口]’는 것은 범중엄이 지은 묘지명 가운데 인물의 효성이 지극하였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대목에

54)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天性至孝, 凡家居事親, 皆從事小學書. 歲辛亥, 丁考妣憂, 哀毀過禮, 勺水不入口, 既斂而殯, 惟歎粥飲漿. 塋于鳳巖山, 仍廬塋側, 寒暑一褐一履, 身不脫絰帶, 寢苦枕木, 蔬糲以食, 而終始不少懈. 鳳巖距生松里第僅十里, 三年不一到門. 若朔望節日之奠, 則我母夫人往于山, 惟於位相見耳. 時俗有喪, 則歸依浮屠法, 若奔波然, 雖號儒家, 亦不免焉. 公獨確然, 斂襲虞祔練祥, 按朱子禮而節行之, 語人則必曰: “吾非敢自異乎俗, 先正古謙讓金府使之教也.” 鄉之士君子, 見其哀有過而禮無逾, 翕然嘆服.”

55) 『소학』의 「명륜」은 인륜을 밝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明父子之親’ 즉 ‘부자지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 내용은 「예기」 「내칙(內則)」 등 다양한 서적들의 본문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자식이 부모를 곁에서 모시는 구체적 방법을 매우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 차용하였다.⁵⁶⁾ ‘歡粥’과 같은 표현은 『의례(儀禮)』에서 비롯하였고,⁵⁷⁾ ‘不脫經帶’, ‘寢苫枕木’, ‘蔬糲以食’과 같은 4자구는 모두 『소학』, 『가례』 등의 내용과 일치한다.⁵⁸⁾ 이처럼 해당 경전으로부터 문구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상례를 치르는 중 김숙자가 음식을 먹고 여막을 지키고 제를 올리는 일체의 행위를 한결같이 『소학』이나 『가례』와 같은 서적의 지침을 표준으로 삼아 시행하였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인용문에 묘사된 김숙자의 상제례가 특별한 까닭은 유가를 자처하는 가문에서조차 불교의 상례를 거행하던 당대의 시속과 달리, 김숙자만이 ‘유독 확고하게[獨確然] 『가례』를 준수하였기 때문이다. <선공사업>의 이 단락은 결국 <선공제의>와 상호 연결될 수밖에 없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 김중직이 <선공제의>를 찬술한 것은 부친 김숙자가 시행하거나 지정한 제례의 진행과정과 의물, 제사에 임하는 마음가짐, 시속을 어디까지 따라야 할 것인지의 판단 기준 등을 적시함으로써 후손들이 제의에 임할 때 참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주요한 대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선공은 종묘를 받드는 데 있어 정성과 공경을 곡진히 다하였다. 매번 아침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절한 뒤 꿇어앉았으며, 외출할 때 사당에 고하는 일을 마치 부모께서 살아계실 때처럼 하였다. 모든 국가의 대사 및 수화(水火), 도적 등의 재앙과 자손의 탄생, 친척의 결혼이나 죽음 등에 관한 일, 관직의 변화에 대한 일들을 반드시 종묘에 고하였다. 제사는 주문공의 예를 근본으로 삼고, 변두(籩豆)의 숫자나 축판의 글은 이천(伊川)의 법식을 사용하였다. (...) 선공은 관직을 옮겨 다니며 곤궁했던 때에도 의물을 추가한 것은 있었으나 줄인 것은 없었다. 길에서는 반드시 죽교(竹輜)에 직접 신주를 모시고 다니셨다. 매양 탄식하며, “내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 하고, 만년에 이르러서도 부축을 받아 제사에 참여하였다.⁵⁹⁾

56) 范仲淹, 『范文正公文集』 권12, <都官員外郎元公墓誌銘>, “及公之喪, 勺水不入口者三日, 公孝悌之性, 不避禍難.” 이 내용은 『소학』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57) 鄭玄, 『儀禮』 권11, <喪服>, “外納居倚廬, 寢苫枕塊, 哭晝夜無時, 歡粥, 朝一溢米, 夕一溢米, 寢不脫經帶.”

58) 주희, 『家禮』 第四, 『喪禮』, “主人兄弟, 蔬食水飲, 不食菜菓, 寢席枕木;” 『소학』 외편, 『가인』 제23장, “古者, 父母之喪, 既殯, 食粥, 齊衰, 蔬食水飲, 不食菜果. 【溫公書儀】”

59) 김중직, 앞의 책, <선공제의>, “先公於奉宗廟, 曲致其誠敬. 每朝夕拈香拜跪, 出告反面若平生, 凡國家大事及水火盜賊, 子姓親戚, 婚娶生亡, 加官降級, 必以告. 祭祀以朱文公禮爲本, 而籩

인용한 대목은 <선공제의>의 총론적인 제1항이다. 외출하고 들어올 때 조상의 종묘에 고하고 그밖에 국가의 중대사나 난리가 있을 때 사당에 고한다는 표현(‘出告反面’, ‘國家大事及水火盜賊’)은 『가례』에서 그대로 인용하였고,⁶⁰⁾ 관직의 이동으로 인해 거처가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은 『논어』 <팔일>에서 공자가 한 말 [吾不與祭, 如不祭]을 인용하였다. <선공제의>의 가장 첫머리에 놓인 이 단락은 <제의> 전체를 관류하는 장인만큼, 해당 예서와 경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공적 권위를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사시제에 쓰이는 제수의 종류와 개수, 제사상에 올리는 순서와 배열 방식, 제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사시제가 아닌 제사에서 의물을 진설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열하는 대목에서는 『주자가례』 <제례>(권5) 가운데 사시제 “구찬(具饌)” 부분의 문체를 활용하되⁶¹⁾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제수의 종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⁶²⁾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재계 태도나 부인 및 자제들의 배열, 절하는 횟수나 방법 등에는 이견이 없지만 조선의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실제 김숙자가 반영했던 내용으로 추가 삽입하여 보완하였다.⁶³⁾ 주희가 애초에 『가례』를 만든 것 역시 시의(時宜)에 따라 변쇄한 예의 절문은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빈천한 자들도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 예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듯,⁶⁴⁾ 김숙자 역시 조선의 현실에 맞는 제수와 제의를 만들기 위해 『주자

豆之數, 祝版之文, 用伊川. (….) 雖逐錄遷徙, 窘迫之際, 儀物有加而無減. 在道路, 必載主於竹轎而自隨. 每嘆曰, “吾不與祭, 如不祭.” 雖晚年, 亦扶掖而承事.”

60) 주희, 『가례』 第一, <通禮>, “或有水火盜賊, 則先救祠堂, 遷神主.”

61) 주희, 『가례』 제5, <제례-사시제>, “省牲滌器具饌 - 主人帥衆, 丈夫深衣, 省牲洌殺, 主婦帥衆, 婦女背子滌濯祭器, 潔釜鼎, 具祭饌. 每位果六品菜蔬, 及脯醢, 各三品, 肉魚饅頭糕, 各一盤, 羹飯各一碗肝, 各一串, 肉各二串, 務令精潔, 未祭之前, 勿令人先食, 及爲貓犬蟲鼠所污.”; 같은 책, 같은 곳, “前期三日齋戒-前期三日, 主人帥衆, 丈夫致齋於外. 主婦帥衆, 婦女致齋於內. 沐浴更衣, 飲酒不得至亂, 食肉不得茹葷, 不弔喪, 不聽樂, 凡凶穢之事, 皆不得預.”

62)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於祭祀儀物, 各有品節. 四仲之享, 籩豆四重, 第一行, 或油果或樹木之實凡四器, 次行, 脯醢菹鱸菹菜凡五器. (….) 凡所羞饌具, 務令精潔, 戒飭膳人, 雖菓實之奇零, 魚肉之片段, 不祭, 不得與兒童貓犬食. 凡祭, 尤慎於齋戒, 前期三日, 沐浴, 散齋二日, 致齋一日.”

63) 예컨대 반찬(飯羞)은 『가례』나 『예기』 등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 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만 행하던 것으로 보인다.

64) 주희, 『晦菴集』 권75, <家禮序>, “凡禮有本有文, 自其施於家者言之, 則名分之守, 愛敬之實其本也, 冠昏喪祭儀章度數者, 其文也. 其本者有家日用之常體, 固不可以一日而不修. 其文又皆

가례』와 조선의 시속을 절충하였다는 것이다.⁶⁵⁾ 김종직은 이처럼 『주자가례』의 문체를 직접 활용하여 김숙자를 성리학적 예제를 직접 실천하는 데 주력하는 사대부로 묘사하고 있다.

제례를 중시하는 면모에 이어, 두 번째로는 혼례에 대한 사유를 드러내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공사업>에는 혼례나 부부윤리와 관련한 일화가 6항, 21항, 22항, 41항 등 총 네 항에 걸쳐 방대한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반복은 앞서 II장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 김숙자가 조강지처를 출처한 사건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선공은 자녀들을 혼례 시킬 때 반드시 세족(世族)인지 여부와 가혼의 유무를 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약이 정해지고 난 뒤에는 이간질하는 말이 끼어들 수 없었다. 전에, 내가 조씨 가문과 정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전안례를 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조씨 가문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간질을 하는 이가 “소량[인용자-김종직]이야 비록 조씨 가문이 아니더라도 어찌 끝내 흠아비가 될 사람이겠습니까. 왜 다른 가문을 찾아보지 않습니까?”라 하니, 선공이 즉시 거절하며, “옛 사람의 말에 ‘혼인 하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이다.’라 하였소. 내 자식과 내 며느리가 서로 호합(好合)한다면 비록 오늘은 빈천하다 하더라도 내일 부귀하게 될 줄 어찌 알겠소? 더구나 납채한 지 이미 오래이니 비록 동퇴연은 못 올렸으나 내 자식은 이미 조씨 집안의 사위이고 조씨의 딸은 곧 나의 며느리인데 어찌 차마 중간에 바꿀 수가 있겠소?”라 하였다. 비록 우리 모부인께서 간절히 청하여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계유년(1453년) 겨울에 초례를 올렸다.⁶⁶⁾

所以紀綱人道之終始，雖其行之有時，施之有所。然非講之素明，習之素熟，則其臨事之際，亦無以合宜而應節，不可以一日而不講且習焉也。(…)世之君子雖或酌以古今之變，更爲一時之法。然亦或詳或略，無所折衷。至或遺其本而務其末，緩於實而急於文，自有志好禮之士，猶或不能舉其要，而困於貧窶者，尤患其終不能有以及於禮也。熹之愚蓋兩病焉，是以嘗獨觀古今之籍，因其大體之不可變者，而少加損益於其間，以爲一家之書。”

65)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今觀先公祠堂祭祀，凡齋戒，參神，降神，進饌，三獻，侑食，受嘏，辭神，餞之儀，皆因朱子之舊，而其間些小節目，有不同者，是豈敢自異於朱子耶？蓋冠服器皿，堂寢之制作，古今夷夏，實有不可強之必同者。故古之煩文，則裁以就簡；今之踈節，則酌以從優。事苟無害於義，則亦同於俗，質之與文，未嘗不並行，而誠敬寓其中，此所以度越今世也。”

66)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先公娶子嫁女，必問其世族與否，家訓之有無，媒妁已定，則離間之言，不能入也。初，宗直聘于曹門，三年未奠薦。人有以曹門之貧爲辭者云：‘少郎雖非曹門，豈終饑者乎？盍改卜他家？’先公輒斥之曰：‘古人有言‘昏娶而論財，夷虜之道。’吾子與吾婦若好合，則今日之貧賤，安知爲明日之富貴乎？況納采已久，雖未同牢，吾子卽曹之婿，曹女卽吾之婦，何

인용한 단락은 제41항으로 혼인 전, 아내 조씨의 모친상으로 인해 김종직과의 혼례가 지연되던 것을 회상한 일화이다. 김숙자가 자녀들을 혼례시킬 때 세족 여부와 가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통혼(通婚)은 반드시 가풍이 뛰어난 사족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조씨 가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혼처를 바꿔보라고 한 어떤 이의 말에 대한 김숙자가 대답은 『소학』에 출처를 두고 있어 자연스럽게 이 대목을 읽는 독자는 『소학』을 상기하게 된다.

문중자가 말하였다. “혼인에 재물을 논함은 오랑캐의 도이다. 군자는 그러한 마을에 들어가지 않나니,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종족이 각각 덕을 가졌고, 재물로 예를 삼지 않았었다.⁶⁷⁾

사마온공이 말하였다. 무릇 혼인을 의논할 때 마땅히 먼저 사위와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가법 등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할 것이요, 부귀만을 흠모하지 말아야 한다. 사위가 진실로 어질다면 지금은 설령 빈천하다 하더라도 나중에도 부귀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진실로 불초하다면 지금은 비록 부유하고 번성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빈천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⁶⁸⁾

이를 통해 김숙자가 『소학』의 내용을 준수하며 자식의 혼례를 통해 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려 한 면모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김숙자가 자식들의 혼례 과정에서 세족과 가혼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확인해야 했던 까닭은 바로 전처 한씨와 이혼한 경험 때문이었다. 제6항에서 김종직은 김숙자가 전처 한씨와 이혼해야 했던 정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부친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⁶⁹⁾

忍中革? 雖我母夫人切請之, 亦不聽. 癸酉冬, 乃醮焉.”

67) 주희, 『소학』 외편, 『가언』 제40장, “文中子曰: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 君子不入其鄉, 古者, 男女之族, 各擇德焉, 不以財爲禮.’”

68) 주희, 위의 책, 제42장, “司馬溫公曰: ‘凡議婚姻,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 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 【溫公書儀】: “婿苟賢矣, 今雖貧賤, 安知異時, 不富貴乎? 苟爲不肖, 今雖富盛, 安知異時, 不貧賤乎?”; “婦者, 家之所由盛衰也, 苟慕一時之富貴而娶之, 彼挾其富貴, 鮮有不輕其夫, 而傲其舅姑, 養成驕妬之性, 異日爲患, 庸有極乎?”

69) ‘조강지처 출처’ 사건에 대한 해명은 김종직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은 그것을 <선공기년>과 <선공사업>에서 반복제시한 데서도 드러난다. 연보에서 그 대략적 내용

선공의 전취 한씨는 선산의 동장(東場) 출신 한변(韓變)의 딸이다. 당시 명나라에서 채너사가 와서 시골 백성들의 집까지 뒤져 여인들을 모두 뽑아 가는 바람에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다. 한변은 딸이 채택되려 할 때 관부의 출입이 어려워지자, 날마다 사재공께 찾아와 선공과 혼인하기를 간청하여 뺏혀 가는 것을 면하려 하였다. 사재공께서는 이미 연로하신 데다 인자한 마음의 소유자이신지라 한변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나머지 선공 몰래 이를 승낙하였다. 공은 당시 채관례도 하기 전이었는데, 다른 일이라고 속이고 목욕을 시켜 머리를 묶게 하자 공이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인의 육례(六禮)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 집에 갔다. 그런데 그 집은 본디 범절이 없었고 부도(婦道)도 제대로 닦지 못했던 것이다.⁷⁰⁾

김숙자는 관례도 올리기 전 조부의 측은지심으로 인해 혼인의 정식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채 떠밀리듯 혼인하였다. 한변은 딸이 명나라로 끌려가게 하지 않기 위해 연로한 김숙자의 조부에게 거듭 사정하였고,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조부의 강요로 인해 혼인하게 된 김숙자의 당황스러운 심경이 자세한 정황 설명 덕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씨 가문이 가풍을 지닌 사족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상황이 없었으므로, 뒤늦게 분제(分制)가 없고 아내 또한 부도를 제대로 닦지 못한 인물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분제’란 개인이 자신의 신분에 따라 행해야 할 제도로서 부자-형제-부부-군신-존비 등이 분별에 따라 각자의 지위에 걸맞은 윤리도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제’가 없다고 한 표현은 곧 김숙자의 부친이 전혀 한씨의 가문에 대해 성리학적 예법을 교육받지 못한 천박한 풍습의 가문이라고 여겼다는 의미로 보인다.⁷¹⁾

을 언급한 뒤 상세한 사건은 <선공사업>에서 기술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보에서는 “永樂十九年辛丑。公正月還京，選史官，將拜之。出妻韓氏妹之夫金宙，用醫術，與星州牧使李敬相善，遂誣公以登第後黜妻，曠敢作飛語，聞于藝文館，因是未拜。”라 하여 조강지처 출처 사건이 처음 조정에 알려지게 된 사건의 개략을 서술하였다.

70)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前娶韓氏，善山東場人韓變之女也。初，采女使自大明來，採及鄉村百姓之家，州里騷然。變慮其采擇時，官府出入之難，日來懇于司宰公，請奉公以婚，庶幾免搜括。司宰公時既老，有慈心，憐其意，陰許之。公未冠，誣以他事，沐而束髮，公泣不知所爲，不備六禮，而如其家。其家素無分制，又婦道不修。”

71) 『禮記集說』 권2, <道德仁義 非禮不成, 教訓正俗, 非禮不備, 分爭辯訟, 非禮不決, 君臣上下, 父子兄弟, 非禮不定>에 대한 주석, “聖人因其自然之分制，爲尊卑貴賤長幼之禮，寓於宮室，衣服飲食，拜起坐立之間，以正君臣，以辯上下，以別父子，以序兄弟，於是人之大倫，始昭然明白，

뒤이어 1418년 한번이 송사에 휘말려 있었는데, 김숙자의 부친이 관아에 들어갔다가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우연히 한씨 가문의 신분이 다름[不可與吾同分]을 확인받고 한씨를 내치게 한 정황을 기록하였다.⁷²⁾

1423년 한씨의 매부(妹夫)인 김주(金宙)가 한번과 함께 사헌부에 고소하여 소송을 벌이자, 사헌부에서 김숙자의 부친 김관 등을 불러 대질신문을 하였다. 이 때 김숙자는 그들과 대변(對辨)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뿐 아니라 대질신문을 당한 부친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해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죄를 인정한 채 파면 당하였다고 하였다.⁷³⁾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훗날 김종직의 혼례 과정에서 김숙자가 세족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족과의 혼인을 추구한 것은 단순히 통혼을 바탕으로 가세 확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풍을 다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김종직은 ‘誣以他事’, ‘強公爲書’, ‘姦計’와 같은 표현을 통해 한씨를 출처하는 데 김숙자의 의지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가 거짓을 꾸몄다는 점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억울함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조강지처 출처’로 인해 김숙자가 평생 중앙조정의 요직에 등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준록』에 한씨 가문의 다급한 처지를 외면하지 못한 조부의 마음씀씀이, 한씨가 사족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임을 자세히 기록해 뒀으로써 부친의 명예회복을 시도하였다. 추후 이 문제가 조정에서 다시 한 번 불거지자, 세종이 나서서 ‘마땅히 쫓아내야 할 부인이라면 아무리 조강지처라도 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김숙자의 처지를 변호하였다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⁷⁴⁾

而不可亂。”

72)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歲戊戌, 我王父進士公, 以事入府庭, 適有稱中云慶者, 與韓變爭訟於官, 指斥變不可與吾同分, 仍勘驗其文券. 王父慚惡而還, 卽強公爲書, 出韓氏令歸其宗.”

73)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歲癸卯, 金宙在都下, 以醫藥出入卿大夫家, 得售其姦計, 招韓變訟于憲司, 憲司訊我進士公及中云慶, 頗得申理. 臺官有主其議者彌縫之, 劾以妄稱出妻爲庶孽. 公不能自明, 遂得罪而罷. 南還, 構草堂於凝川西村, 放情丘壑, 採山釣水, 惟意所如, 自號江湖散人, 鄉里歎其風致.”

74)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正統初, 以諸公薦, 召還京, 復入成均, 累遷內資主簿. 上諭宰相舉經明行修堪爲師儒者, 別置錄. 先公與趙壯元注俱在首薦, 卽以公爲世子右正字, 時司諫朴仲林, 其姊爲夫所逐, 憤然切齒, 移怒於公及趙, 疏論某與某, 前日皆以棄糟糠之妻獲罪者, 不宜輔導東宮. 世宗曰: “當去之婦, 雖糟糠, 豈不可去? 今朝中豈少出妻者, 何獨罪斯人乎?” 朴終不置, 故公

같은 사건이 『세종실록』에는 김숙자가 조강지처를 버린 죄를 얻고 파직되었다가 용서 받고 다시 벼슬길에 들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행적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사간원의 상소와 ‘김숙자의 일은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는 세종의 비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차이를 보인다.⁷⁵⁾ 이러한 문학적 윤색은 감정적·논리적 차원에서 부친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옹호하려는 의지의 발로이다. 김종직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김숙자가 요직에 진출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식들의 혼례 때 『소학』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삶의 원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인물이었다는 서술을 보완 제시하였다.

『이준록』에서 부자와 부부 윤리의 수호자로서의 면모에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내용이다. ‘효제’는 사대부가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이기 때문이다.

선공은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다. 기씨(奇氏)에게 시집간 누이가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기씨 전처의 자식인 상렴(尙廉)이라는 자가 집안의 재산을 독식하고자 기부인에게 매우 무례하게 대하였다. 기부인이 도성에 가서 소송을 하였는데, 상렴이 비복들과 짜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그녀를 위기에 빠뜨려 기부인이 결국 옥에 갇혔다. 선공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즉시 행장을 꾸려 도성에 올라가 아침 저녁으로 직접 사헌부에 가서 지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대관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탄하였다. 그 후 거짓으로 무함한 사실이 드러나 기상렴과 비복들은 저자에서 거열형을 당하였다. 선공께서는 기부인의 아들 윤겸(允謙)과 윤명(允明)을 자기 자식처럼 어루만져 보살피 주고, 권면하여 벼슬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기부인이 개령에 살 때 집이 가난하여 딸을 시집보낼 수 없었는데, 선공이 차일과 음식, 술 등 혼례품을 마련하여 사족에게 시집보냈다.⁷⁶⁾

落正字，滲與趙同爲成均注簿，未幾，出爲善山教授官。”

75) 『세종실록』 권83, 1438년(세종 20) 10월 26일, “司諫院左正言李禮長啓曰:(…)且東宮侍講之官，職掌輔養，宜擇端人正士，以內資主簿金叔滋兼書筵正字。臣等竊謂叔滋曾棄糟糠之妻，受罪沈滯，今蒙赦宥，復開仕路，然未聞悔過之跡。臣等以謂薄行之人，不宜備員於侍講之列，請亟改差。”上曰：“(…)叔滋之事，予當更議。”

76)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公友愛篤至。有妹適奇氏早寡，前妻子尙廉，謀專據家財，頗無禮敬。奇夫人詣京訟之，尙廉召婢僕協謀，構流言以危之，奇夫人被繫於獄。先公聞之，卽促裝如京，朝夕身自訴冤於憲司，無幾微厭倦之色，臺官嘆其行人所難。果以誣詐，尙廉與婢僕，輾諸都市。奇

인용한 대목은 21항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이 단락에서 김종직은 고모 기부인이 전처 자식의 모함에 빠졌던 일화를 서술하고 거기에 대응하였던 김숙자의 노력을 묘사하여 김숙자와 기부인간의 우애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세종실록』에도 실렸던 패륜의 사건으로, 기씨 초취의 아들인 기상렴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기부인이 재취의 아들과 간통했다고 무고한 충격적 내용이다.⁷⁷⁾ 실록에서는 김숙자가 매일 사헌부를 찾아가 누이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약 한달 뒤 의금부의 조사에 의해 기부인이 풀려났다는 내용과 기상렴 일당에 대한 처벌 과정만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⁷⁸⁾ 이 단락의 일화는 김숙자의 출처 문제와, 고모 기부인이 전처 자식과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자신의 가문이 윤리강상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두 번이나 연루되었던 점을 의식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가난한 누이의 살림을 감안하여 조카의 혼수품을 직접 마련하고 사족을 골라 혼인시켜주었다는 내용은 당나라의 사대부 유작(柳綽) 집안의 가법과 우애를 통해 인륜을 실증한 『소학』의 한 조목을 상기시킨다.⁷⁹⁾

『소학』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원리와 규범은 개인으로부터 가정, 국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있지만 특히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⁸⁰⁾ 김종직은 김숙자가 가정 내에서 효제를 중심으로 한 『소학』의 기본적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고, 특히 상제례의 경우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시속과 절충함으로써 다른 사대부들이 유교식 상제례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가장 방대한 양의 일화로써 강조하였다.

夫人之孤允謙允明，撫視之如子，勉令入仕。奇夫人居閑寧，家貧，有女不能嫁，先公具幄牢酒，歸之士族。”

77) 『세종실록』 권47, 1430년(세종12) 1월 14일. 한편 기부인은 기씨의 셋째 부인이다.

78) 『세종실록』 권47, 1430년 2월 28일; 3월 5일.

79) 주희, 『소학』, 『선행』 제51장, “唐河東節度使柳公綽，在公卿間，最名有家法。(…) 姑姊妹姪，有孤嫠者，雖疏遠，必爲擇婚嫁之，皆用刻木粧奩，繡文綳，爲資裝，常言‘必待資裝盡備，何如嫁不失時?’”

80) 장정호, 『‘가정의례교육서’로서의 『주자가례』의 성격과 의의』, 『교육사상연구』 24권 3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253면.

4. 경신(敬身) : 원칙과 지조를 겸비한 위정자

김종직은 부친 김숙자의 관력 가운데 지방관 역임 시절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회상하였다. 제10항에서 700자 가량에 걸쳐 수령칠사 관련 일화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아래에 제시한 인용문은 지방관으로서 권농(勸農)과 백성 구휼을 가장 우선시하던 김숙자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락이다.

선공이 두 번 현감이 되었는데 그 때마다 반드시 탄식하며 “토지가 있고 인민이 있으니, 여기에서도 나의 학문을 실행할 수 있다.”라 하였다. 혁혁한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더러운 풍속을 고치고 육행(六行)을 일으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을 권장할 때에는, 봄가을마다 시종들을 거의 따르지 않게 하고 모소 밭도랑 사이를 오가며 방죽을 순시하여 (...)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많이 입었다. 구황을 할 때에는 반드시 풍화(風火)보다 급하게 대처하였다. 당시의 수령들은 모두 나이(挪移)의 율을 두려워하여 의창의 곡식이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은 송장을 보기만 하고 구제할 줄을 몰랐다. 하지만 선공께서는 “옛날에 한소(韓韶)는 골짜기에 뒹구는 백성들을 살린 뒤 웃음을 머금고 땅속에 들어가고자 하였고, 급암(汲黯)은 임금의 명령을 가칭하여 관창을 열어서 백성을 구제하고 처벌 받을 것을 사양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백성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왜 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시며 군수(軍須)를 몽땅 풀어 백성들을 진휼하였다.⁸¹⁾

인용한 부분에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면하기 위해 직접 밭을 오가며 작황의 상황을 살피되,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시종들을 번거롭게 대동하지 않은 채 순시하며 백성들을 배려하는 모습 등 ‘농상성(農桑盛)’과 ‘호구증(戶口增)’을 위해 노력한 김숙자의 업적과 세심한 용심(用心)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단락의 서술 기법은 김숙자의 업적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81)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兩爲縣監, 必嘆曰: “有土地有人民, 是亦可以行吾學也.” 不求赫赫名, 專以革汚俗興六行爲首務. 其勸農桑也, 則每春夏, 寡驛從, 躬出入阡陌, 巡視堤堰, 民乏種者貸之, 乏食者賑之, 勤者慰而惰者懲. 栽桑於官之隙地, 令民來取種焉. 在開寧, 築炭洞谷松松林三陂, 溉田幾七八百頃, 民多賴其利. 其救荒也, 必急於風火. 時守令等怕於挪移之律, 義倉告罄, 則坐視饑殍而不知救. 先公曰: “昔韓韶活溝壑之民, 欲含笑入地; 汲黯矯制發倉, 而無辭於罪. 苟存心於民, 何懼於法?” 盡發軍須, 以賑給之.”

서 보여주는 김숙자의 생각과 태도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⁸²⁾

먼저 김숙자는 사대부가 학업을 통해 온축한 경륜을 발휘하여 백성들에게 이택을 끼칠 수만 있다면, 비록 그 무대가 중앙 조정이 아닌 향촌이더라도 학덕을 시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겼다는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수령이라는 직위를 작게 여기거나 수령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 없이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한 여타의 인물들과 김숙자가 다르다는 의미일 뿐만은 아니다. 즉 중앙조정에서나 향촌에서나, 그 직위의 고하에 구애받지 않고 정책을 통해 내면에 온축한 학문을 발휘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위정자의 진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황과 관련한 대목에서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기보다는 금법(禁法)에만 신경 쓰는 일부 수령들의 고식적(姑息的) 태도를 꼬집고 있다. ‘나이(挪移)’는 수령이 공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는 국법으로서, 수령들이 거기에 저촉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백성의 구휼에 쓰일 의창곡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를 보충하지 않아 실제로 구황미가 필요할 때 백성들을 구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후한 때 출몰한 도적들에 의해 생업을 잃고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관창의 곡식을 베푸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한소(韓韶)의 모습과,⁸³⁾ 전한 때 가뭄으로 인해 부자간에 서로를 잡아먹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 하남 지역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념으로 조칙을 가칭하는 죄를 범하는 것도 불사하였던 급암(汲黯)의 모습을 예시로 들고 있다.⁸⁴⁾ 이를 통해 백성 구제에 관한 일이라면 죄를 범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김숙자의 강직한 성품과, 대의를 추구하고 자질구레한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대범한 경세가의 면모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종직은 역

82) 『소학』에서 위정자로서의 치적을 강조하는 내용은 「경신」보다는 「명륜」에 해당하지만, 치적 자체보다는 정치에 임하는 해당 인물의 원칙과 소신을 보여주는 언행을 언급한 경우 「경신」에 배치되어 있다. 『소학』 외편, 「선행」, <實敬身> 제56장, 57장, 59장 등 참고.

83) 范曄, 『後漢書』 권62, <한소전>, “韓韶(…) 賊聞其賢, 相戒不入羸境餘縣, 多被寇盜, 廢耕桑, 其流入縣界, 求索衣糧者, 甚衆. 韶愍其飢困, 乃開倉賑之, 所粟贍萬餘, 戶主者, 爭謂不可, 韶曰, 長活溝壑之人, 而以此伏罪, 含笑入地矣.”

84) 班固, 『漢書』 권50, <급암전>, “過河內, 河內貧人, 傷水旱萬餘家, 或父子相食. 臣謹以便宜持節, 發河內倉粟, 以振貧民. 請歸節, 伏矯制罪, 上賢而釋之.”

사서의 사례를 활용하여 마치 김숙자의 생각을 읽어낸 듯 애민과 백성의 구휼이라는 대의보다는 회계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에 매몰되어 있는 일부 위정자들의 목적 전도의 태도를 준엄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 항목이야말로 『이준록』이 국가의 명에 따라 임기를 채우는 데 급급한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백성에 대한 자발적 사명감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수행하는 부친의 면모를 가장 정체롭게 회상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대부들이 공적 책임감은 물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과단성을 담지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질사를 순차적으로 제시한 단락의 가장 앞머리에 이러한 원칙을 배치한 까닭은 바로 그러한 김숙자의 삶의 태도가 이어지는 단락 전체에 관류하고 있음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아전들을 부릴 때에는 약속을 만들어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였다. 심지어 장부의 세세한 내용까지도 실상을 점검하여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서들이 감히 간계를 부리지 못하고 선공을 ‘청수백석(淸水白石)’이라고 불렀다. 연례로 바치는 공물 가운데 관에서 직접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백성들에게서 징수하지 않았다. 늙고 병든 사람이나 고아들은 모두 은혜로써 길러주었고, 빈객들이 찾아오면 말 먹일 풀과 음식 접대를 모두 넉넉하게 하였으며, 때를 놓치고 시집가지 못한 사람은 혼수를 지급하여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⁸⁵⁾

인용한 단락은 이두 능력을 바탕으로 장부와 문서를 세세하게 검핵하여 이서(吏胥)의 농간을 미연에 방지하는 김숙자의 깐깐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무를 점검할 때에는 위엄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애롭게 대하여 이서들이 ‘청수백석’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라 칭송하였다고 함으로써, 김숙자가 원칙을 견지하되 아랫사람들에게 관대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불필요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점, 환과고독을 두루 챙긴 점, 지방에 찾아오는 빈객들을 넉넉하게 접대하여 왕화를 빛나게 한 점 등을 다시 한 번 망라함으로써 위정자로서 김숙자의 마음이

85)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其馭吏胥也, 作爲約束, 恩威並濟. 雖簿書之細微, 明於檢覈, 故吏不敢售其姦, 號爲淸水白石. 年例貢獻, 官可自備者, 不征於民. 老疾孤幼, 皆有惠養, 賓客之過, 俱饒芻穀, 失時不嫁者, 爲給資裝, 令醮之.”

짐을 실증하는 개합적(開闔的)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후에 제시된 항목에서는 김숙자의 개인적 태도로 자연스럽게 내용이 전환된다. 향시의 고시관이 되었을 때 대리시험을 보려는 자를 적발한 일화를 기점으로, 주어진 상황에 걸맞은 원칙과 기개를 견지한 인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⁸⁶⁾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로 꿩고기 사건을 들 수 있다.

선공이 예빈시에 근무하실 때의 일이다. 일찍이 연회에 참여하였는데, 성명은 잊었으나 당시 전지(傳旨)를 받드는 일을 하여 스스로 기세가 한창 등등하던 환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꿩구이[雉炙]를 먹다 보니 고기가 조금 덜 익어 피가 약간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 판사(判事)를 불러오게 하여 조정에서 모욕을 주려 하였다. 판사가 그때 마침 소변을 보러 가고 없자 우리 선공께서 대신 들어가서는 그 환관에게 예를 표하지 않자, 그가 선 채로 꾸짖기를 “꿩고기가 익지 않았으니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자, 선공 역시 서서 “꿩고기는 우리 예빈시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니, 그대는 해당 판사에 물어 보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환관이 발끈 화를 내었다. 조금 뒤 판사가 와서는 무릎으로 영금영금 기면서 관(冠)을 벗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과하자, 그 환관이 낮빛을 금방 풀고는 “판사는 어찌하여 일찍 오지 않고 저런 뻣뻣한 유생을 대신 보내셨소?”라고 하였다.⁸⁷⁾

인용한 단락은 김숙자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의 일화를 기록한 제12항이다. 임금의 전지를 받드는 위세 높은 환관이 접대를 받다가 미처 다 익지 않은 꿩고기를 빌미로 위세를 떨치는 장면을 행동묘사로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러한 의도를 간파한 김숙자가 목을 숙여 인사하지 않고 그 위세에 두려워하기는커녕 소소한 일은 맡은 담당자가 있으니 자신의 소관이 아니

86)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甲子年 星州鄉試, 先公爲考試官, 晉州人有冒他姓名而入場者, 卽搜索黜之. 他試冒濫人, 彰露於國試, 逮劾諸道, 有舉子以先公事白之, 問官皆嘆公之奉法云.”

87)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先公在禮賓, 嘗於內宴. 有一宦者, 失其姓名, 以承傳旨, 勢方薰灼, 食雉炙有血點, 使招判事欲廷辱之, 判事適便旋不在, 公代之入, 不爲之禮, 宦者立讓曰, “進御之炙, 不熟何也?” 公亦立而謝曰: “進御之炙, 非本寺所供, 君其問諸其司.” 宦者色勃然, 少選, 判事來, 匍匐免冠而謝曰: “死死罪罪.” 宦者色遽解云, “判事何不早來, 而代以強項之儒生乎?” (밑줄 그은 부분: ‘以承傳旨’는 『한국문집총간』 수록 『이준록』의 원문에 ‘旨’라고 되어 있으나 1709년 예림서원에서 간행한 본의 후쇄본이나 1892년 간행 『이준록』에서는 모두 ‘自’라고 되어 있다.)

라는 원칙적 답변으로써 유자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던 일화를 대화체와 행동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숙자의 태도는 불필요하게 낮은 자세를 취하며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관사의 행위와 선명하게 대비됨으로써 더욱 부각된다.

이 사건과 조응되는 것이 제24항과 38항 등이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뒤 벼슬길에 나갔을 때 남에게 도움을 빌리지 않았으며, 조강지처 출처 사건으로 인해 모멸을 당한 뒤에도 구차하게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가난하고 담박한 생활을 즐겼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이나, 동년 급제자들이 권력을 잡았음에도 이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서신을 보내어 교유하며 청탁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아 낮은 관직만을 역임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이 그러하다.⁸⁸⁾ 또한 세종대의 유력 정치인인 김종서의 말을 짐짓 알아듣지 못하는 체 하며 뇌물을 바치지 않았던 일화도 들 수 있다.⁸⁹⁾ 즉 김종직은 김숙자가 이처럼 유력 정치인 앞에서 주눅 들거나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지조를 견지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백성에 대한 애정과 책무의식, 뛰어난 업무 수행능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

물론, 언제나 이처럼 원칙만을 견지하는 경직된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관을 역임하던 시절 제철과일을 맛보라고 가져다 준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여 거절하지 않고 받은 일화를 서술하며 일의 경중을 가릴 줄 아는 유연한 면모 역시 소유하였음(제19항)을 억양법을 통해 제시하였다.⁹⁰⁾

88)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才高志遠, 始以高第出身, 銳于功名, 不承藉于人. 自披韓巒污讎以來, 卷而懷之, 恬於進取, 若將終身. 世宗雖召用之, 猶試下僚, 朝夕屢匱, 泊如也. 性又不喜干謁權勢之門, 望而避之, 同年若李判書堅基, 趙代言瑞康, 李參判邊, 卞參議孝敬, 成判書念祖, 相繼執權, 而未嘗往候于門墻, 亦未嘗音耗相聞也. 以故除參官之後, 所歷皆卑冗, 而立朝未一年, 輒復出外, 公則不以介懷, 小心奉公, 夙夜謹慎而已.”

89)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乙亥夏, 與金南海允德, 遇於清道公館夜話. 公云: “予昔在高靈, 金宗瑞時以都巡察使入縣, 召余對食. 金指案上白砂器曰: ‘貴縣砂器, 甚善甚善.’ 言至再三, 予實未了其欲之也, 只唯而退. 後金在京師, 屢對人諄予之拙, 冀予聞之.”

90)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先公爲縣時, 邑人有餽節菓者, 受之曰: ‘拒之則是矯情. 且若酒食財賄, 誠不可受, 至若菓菓, 乃節物也. 以吾爲地主, 故禮遺以欲其嘗爾. 彼豈以一菓菓, 干利於我? 豈以一菓菓, 輕重吾政哉?’”

선공은 천성이 충후하여 모나지 않았으며 크게 좋아하거나 싫어할 일이 아니면 기쁨이나 분노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들을 대하는 데 크게 무릅없이 굴지 않았으며 소탈하고 간소하여 혐의하는 바가 없었으니, 남들은 그 분이 온화하여 종일토록 더욱 공경하며 누가 자신을 범하더라도 따지지 않음을 볼 뿐이었다. 비록 향리의 백성들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또한 말씨와 낮빛을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공을 사랑하고 공경하였다.⁹¹⁾

인용한 단락은 제25항으로 앞서 살펴보았듯 위세 넘치는 인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던 것과는 달리, 김숙자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되도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온화한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비야말로 김숙자의 강직한 성품과 지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지방관으로서 다른 사람의 훌륭한 일을 이루어 주기를 좋아하였다는 일화(제27항)⁹²⁾, 전임자가 군량을 축낸 것을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임기 동안 관아의 곡식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임기 내에 부족분을 채워 넣은 일화(제29항)⁹³⁾ 등을 통해 김숙자의 관대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비는 김숙자가 백성과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겠다는 사명감, 동료들을 곤란하지 않게 하려는 융통성을 지닌 인물임을 더욱 부각시키는 한편 부당한 상관의 지시나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와 지조를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자아낸다.

91) 김종직, 앞의 책, 앞의 글, “先公天性忠厚, 不爲崖異, 非有大大惡之事, 喜怒不形於色, 接人待物, 不大褻狎, 而坦夷簡當, 無所嫌疑. 人見其溫溫然終日愈敬, 犯之而不校. 雖鄉里小人在坐, 亦不假以辭色, 故人人愛敬之.”

92)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先公樂成人之美, 開寧有民徐文者, 遭母喪, 廬墓三年, 其父先母死已三十餘年, 悼其時身稚未能持服, 移父骸骨, 合瘞母塋. 又居三年, 公以爲愼終追遠, 爲士者尙或未盡, 文以隴畝之人, 而如是焉. 其哭踊奠享之節, 未免於徑情直行, 而其至性有可嘉也. 卽具報于監司, 監司云: “文雖如是, 無特異之感應, 不可以聞諸朝.” 先公嘆曰: “必待孟宗, 王祥而後爲孝子, 則今之世, 又焉有孝子乎?” 乃復其戶.”

93) 김종직, 위의 책, 위의 글, “初赴高靈, 閱軍須, 縮三千餘斛, 先公曰: “若申聞于朝, 前官當陷贓罪, 吾何忍爲? 吾若大滿問不殿, 則雖不橫斂於民, 何有於數千?” 卽解由遣之. 自是, 縮節衙廩, 裁減冗費, 臧獲皆食以蔬糲, 訖五年得充其數, 其不欲危人如此.”

IV. 문학사적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준록』은 김종직이 김숙자의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부친의 삶의 행적을 『소학』의 입교와 명륜, 경신이라는 주제의 식에 따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것은 단순히 김숙자의 행적을 정리하는 의미를 넘어, 김종직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후손과 기타 독자들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공사업>의 총론에서 김종직은 김숙자가 성리학적 대원칙을 실천하는 이상적·규범적 사대부임을 분명히 언급하는 한편, 그러한 면모가 세속으로부터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입교-명신-경륜이라는 『소학』적 저술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증한 김숙자 상(像)을 통해, 그 우월함이란 성리학적 원칙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지조를 유지하는 상태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⁹⁴⁾ 즉 시속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내면의 도덕적 원리원칙을 고수하는 삶에 대한 확신과 예찬, 그러한 삶을 실제 살아갔던 부친에 대한 자부심이야말로 『이준록』의 문학성을 담보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세력이 강한 사람들의 위세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거나 편승하지 않고 사대부로서 올곧은 지조를 견지한 채, 교육자이자 실천가적 위정자 등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성리학적 원칙과 도덕적 신념을 실천해나가는 군자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이상적·규범적 인물로의 형상화가 언행이라는 실천적 일화를 통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준록』은 『소학』과 유사한 교육적 효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숙자는 조강지처를 출처한 문제로 인해 그 학식과 성품에 걸맞은 지위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지만,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소학』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원칙의 실천

94) 『朱子語類』 권11, “人做功課, 若不專一, 東看西看, 則此心先已散漫了, 如何看得道理出? 須是看論語, 專只看論語, 看孟子, 專只看孟子, 讀這一章, 更不看後章, 讀這一句更不得, 看後句這一字理會未得, 更不得看下字, 如此則專一而功可成. 若所看不一汎濫無統, 雖卒歲窮年, 無有透徹之期, 某舊時文字, 只是守此拙法, 以至於今, 思之只有此法, 更無他法.” ‘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김우정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김우정, 『拙』을 통해 본 문학 담론의 한 양상,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137~145면.

과 고민을 바탕으로 ‘학업-윤리적 이상-삶’의 일치를 제고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찬술작업은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데에도 실패한 1458년의 김종직은 자책감과 실망감을 극복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한편 『이준록』은 조선의 산문사에서 새로운 장르적 규범을 개척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친의 전기적 기록을 총망라하되, 원칙과 실천의 일치를 보여주는 일화를 중심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됨으로써 가사(家史)라는 기록적 성격과 가범이라는 규범적·교육적 성격을 동시에 갖추었기 때문이다. 연보나 간단한 세계 기록을 통해 가문의 역사를 정리한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준록』처럼 사우, 언행, 제의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기록을 망라하여 한 책으로 엮은 경우는 없었다.

『이준록』은 부친의 삶의 행적에 대한 정리와 억울한 사건에 대한 해명이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 자손들에게 선조의 모범적 삶의 행적을 기록으로 제시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여기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길재, 윤상 등 여말선초에 고명한 학업과 덕행으로 이름난 인물들의 일실된 기록의 편린이 담겨 있어, 그 후손들이 추후 문집을 편찬할 때 대거 인용할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⁹⁵⁾ 또한 『이준록』이 제례서로 통용되던 정황은 송강 정철의 편지에서도 보인다.⁹⁶⁾

『이준록』의 창작 전통은 이후 김종직의 제자인 김흔(金訢)의 행적에 대해 그 아들 김안로(金安老)가 계승한 바 있다. 김안로는 『안락당집』(권4)에

95) 『冶隱先生言行拾遺』 권中, [附錄], <彝尊錄語【佔畢齋金宗直】>, “鄉先生吉公再, 以嘗事高麗, 辭祿於本朝, 累徵不起, 卜築金烏山下, 教授子弟, 童叟雲集. 其教自灑掃應對之節, 以至蹈舞詠歌, 不使之躋等. 公亦往受業焉. 【公卽司藝金叔滋, 佔異公父也.】”; 『別洞先生集』 권3, [附錄], <聞見錄>, “尹公體泉人. 以鄉貢登第, 經學精深, 誨人不倦. 凡居國學十六年, 累遷至藝文提學, 滿朝卿大夫, 皆其門人. 年七十, 退老于鄉, 學者雲集, 八十三而卒. 曾守黃洞時, 司藝金公叔滋, 年甫十六, 徒步往受易. 尹公爲盡其奧, 金公窮探陰陽變化之數, 原始要終之說, 由是易學大明於東國. 【佔畢齋彝尊錄】”

96) 정철, 『松江別集』 권1, [家問書], <寄振溟【九月十一日】>, “父病依舊, 方欲尋醫問藥矣. 父傷於頃日忌祭, 明明日外廊時祭, 不欲參之, 汝須今日早來致齋, 代父行之爲可. 彝尊錄, 儀禮經傳送還, 傳告希元爲可.”; 朴世采, 『南溪集』 권25, <答宋尤齋別紙>, “家禮所謂蔬菜三品, 可以問解所論沈菜熟菜醋菜等當之. 若脯醢則不過二物而已, 將以何物代爲三品耶? 所謂魚肉, 要訣以生者用之, 問解以魚湯肉湯言之, 用生之義, 雖未知其必然, 而龜峯於禮答問詳之. 且觀佔畢齋彝尊錄, 其考司藝祭禮, 用生魚肉云. 粟谷用生, 或是東人舊習也.”

서 <선집기(先執記)>나 <유행(遺行)>이라는 편명 하에 선친의 어린 시절의 성품과 문학적 재능, 수학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교유했던 인물, 조정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정황 등을 10구 내외의 짧은 편폭에 담고, 그 출처를 병기였다는 점에서⁹⁷⁾ 『이준록』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종직의 제자 김굉필은 가범을 지어 자손들을 훈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내외의 직분을 분간하고 상벌을 시행하며, 매달 삭망에 독법의 예를 직접 시행한 일, 묘제 및 강목의 규례를 깨우친 일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⁹⁸⁾

김종직의 13대손인 김식(金植, 1807~1876)은 『이준록』의 글쓰기 수법과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속이준록(續彝尊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을 저술함으로써 자신의 부친 김호진(金虎振) 일생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준록』은 이처럼 사대부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김숙자와 김종직의 고뇌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은 물론, 조선의 사례를 담은 조선식 『소학』의 거의 첫 사례이다. 또한 『이준록』이 문학적 형상성에 못지않게 실용적·교육적·기록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문학의 특징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한다.

97) 김안로, 『顔樂堂集』 권4, <遺行>, “佔畢齋誘掖後進, 多所成就, 蔚然爲文學之宗, 當時聞人, 無不業門下, 公少亦樞衣, 而日就高明, 文簡深加敬服, 推以益友, 論文章, 至公曰: ‘當求之古人中, 以文名世者林林, 而最服唯公.’ 梅溪亦曰: ‘吾輩作詩, 未免脂粉, 如公, 眞骨髓也.’ 【季父判書公, 聞之梅溪】”

98) 정경주, 『한훤당 김굉필 도학의 전승 양상』, 『영남학』 2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14~15면.

참고문헌

1. 자료

- 김종직, 『佔畢齋集』(한국문집총간 DB)
김종직, 『彝尊錄』(한국문집총간 DB)
임정기 역, 『국역 점필재집』(민족문화추진회, 1997)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역, 『역주 점필재집』(점필재, 2016)
성백효 역, 『현토완역 소학집주』(전통문화연구회, 1996)
김안로, 『顏樂堂集』(한국문집총간 DB)
윤 상, 『別洞先生集』(한국문집총간 DB)
정 철, 『松江別集』(한국문집총간 DB)
『冶隱先生言行拾遺』(한국문집총간 DB)
『小學集註』(中國基本古籍庫 DB)
『朱子語類』(中國基本古籍庫 DB)
『晦菴集』(中國基本古籍庫 DB)
조선왕조실록 DB

2. 논저

- 구슬아, 『김종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사학지』 43, 단국사학회, 2011, 63~87면.
김성우, 『15~16세기 善山·金泉 지역 儒學者들의 교류와 朝鮮 性理學의 전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역사문화학회, 2015, 47~73면.
김우정, 『拙』을 통해 본 문학 담론의 한 양상』, 『태동고전연구』 2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8, 133~160면.
미우라 구니오(三浦國雄) 역주, 이승연 옮김, 『주자어류선집』, 예문서원, 2012.
시어도어 드 배리 저, 표정훈 역, 『중국의 ‘자유’ 전통』, 이산, 1998.
신동은, 『『소학』의 도덕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45, 한국교육철학학회, 2009, 103~120면.
오선주, 『정훈의 우환 의식에 대한 재고』, 『한국시가문화연구』 22, 한국시가문화학회, 2008, 185~209면.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이강옥, 『일화의 형성 원리와 서술 미학』, 보고사, 2014.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보고사, 2004.
- 장정호, 「‘가정의례교육서’로서의 『주자가례』의 성격과 의의」, 『교육사상연구』 2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0, 241~262면.
- 정경주, 「조선조 禮樂文明과 집필재 金宗直의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81~112면.
- 정경주, 「한훤당 김굉필 도학의 전승 양상」, 『영남학』 2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7~34면.
- 지전화이(季鎭淮) 저, 김이식·박정숙 역, 『사마천 평전』, 글항아리, 2012.
- 진원, 「朱子の小學論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진원, 「『소학』의 구성내용으로 본 주자의 소학론」, 『한국학연구』 3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545~567면.
- 홍아주, 「朴宗采의 『過庭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A Literary Study on Kim Jong-jik's *IICHUNROK*(彝尊錄)

Koo, Seul-Ah

This paper offers a literary analysis of Kim Jong-jik's *IICHUNROK*(彝尊錄). *IICHUNROK* is a literary records of the life of his father Kim Suk-ja(金叔滋). It'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Genealogy, annual report, the list of colleagues, speech and actions, and the way of religious ceremony. Kim Suk-ja has been a decisive influence on Kim Jong-jik's position as a teacher who emphasizes the practice and learning of *SOHAK*(小學). I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structure and subject matter of this book.

Although *IICHUNROK* has been regarded as a rationale for the author's biographical facts, but it contains Kim Jong-jik's literary inten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analyze as a literary works with a single literary theme.

A review of the background and composition of this book, Kim Jong-jik was trying to recover his father's honor by organizing his father's academic, ethical and political achievements. In addition, he stated that he tried to secure the educational effect on readers by using the writing attitude and composition method of the book *SOHAK*.

Subsequently, the subject matters of this work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ain subject of the book *SOHAK*- general introduction(總論), education(立教), ethics(明倫) and deportment(敬身). In accordance with this grand scheme, the contents were classified and the important episodes were precisely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can be inferred that Kim Jong-jik presented *IICHUNROK* intention to make a new kind of *SOHAK* the addition of Chosun's practice.

In general introduction, Kim Jong-jik defines his father's life as a normative character that protects ethics and practicing the moral principle of filial piety and fraternity(孝弟). This is not limited to Kim Sook-ja's life, but also to Kim Jong-jik's lifelong claim that readers should practice moral principles and self-disciplines.

In educational section, Kim Jong-jik introduced the method and training sequence

of the neo-Confucianism suggested by his father. It also emphasizes the aspect of educators who have focused on cultivating local talents. The ethical section presents episodes related to rituals and marriages. Kim Sook-ja emphasized that the household of the gentry should practice the teachings of *SOHAK* and *GARYE*(家禮). Lastly, in deportment sections, Kim Jong-jik presented his father's position as a true gentleman who keep his principles.

IICHUNROK reflects various ways of Kim Jong-jik's literary patterning. Through this work, Kim Jong-jik organized his father's life and he was able to bring educational effect to readers. These methods of writing were handed down by later writers in various ways such as household history, family standard and lecture books. This is an example that reveals the practical and record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in early Chosun.

keywords: Kim Jong-jik(金宗直), Kim Suk-ja(金叔滋), *IICHUNROK*(彝尊錄), *SOHAK*(小學), *GARYE*(家禮).

접수일자: 2017. 3. 31. 심사기간: 2017. 3. 31.~2017. 5. 10. 게재결정: 2017. 5. 10.
